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學位論文

馬韓의 政勢變動과 3세기 百濟의 制霸

2018年 2月

서울대학교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金 珉 奭

馬韓의 政勢變動과 3세기 百濟의 制霸

指導教授 徐 毅 植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1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金 珉 奭

金珉奭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8年 1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國文抄錄〉

馬韓의 政勢變動과 3세기 百濟의 制霸

본 논문은 우리 측 자료와 중국 측 자료를 상호 補完的으로 운용하여 百濟가 馬韓을 대표하는 位置에 이르는 과정을 實證的으로 糾明한 것이다. 백제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韓國 古代史의 전체적 흐름으로 眺望하는 위에서 古朝鮮 사회의 繼起的 발전 형태의 일부로 파악하는 데 主眼點을 두었다.

三韓으로 구성되었으며 辰王이 ‘盡王三韓之地’하는 진국은 문헌상 적어도 서기전 2세기 후반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진국은 漢과 交涉하는 한편 衛滿朝鮮으로부터 亡命한 대규모 流移民 집단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등 그 세력이 위만조선과 比肩될 정도였다. 그러나 진국은 서기전 1세기 중엽에 접어들어 그 체제가 크게 動搖하기 시작하였다. 辰韓 諸國이 독자적으로 居西干을 共立함으로써 新羅를 형성하여 진국에서 이탈한 일을 계기로 삼한은 각기 分立하는 흐름에 놓였고, 아울러 삼한의 王인 目支國 진왕의 영도력도 크게 약화하였다.

이러한 政勢의 變動 속에서 마한의 小國들은 진한의 분립에 便乘하여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각지에서 大小의 통합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하나가 백제였다.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亡命 집단이 건설한 十濟를 중심으로 한강 유역의 諸國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성립되었다.

마한의 一員으로 성립한 백제는 좁게는 마한 사회, 넓게는 辰國 사회를 母胎로 하여 거기서 얻은 경험과 문화능력을 繼承하며 발전하였다.

진국은 삼한 諸國이 모여 辰王을 공립하고 그 진왕에 諸國이 所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백제가 성립·운영되는 원리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한강유역의 마한 諸國이 모여서 共立한 백제의 ‘王’은 ‘吉支’라 칭해졌다. 이는 箕子朝鮮의 ‘箕子’, 고구려의 ‘皆次’, 그리고 진한의 ‘居西干’과 대응하는 마한의 王號였다.

3세기 중엽, 마한은 복수의 吉支 세력들이 독립적으로 竝立하는 형국을 이루고 있었다. 전통의 목지국 수장이 명목상으로는 ‘辰王’으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기실 진왕 세력은 과거의 위상을 거의 상실하고 吉支 세력의 하나로 존재하다시피 하는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마한의 형세는, 이웃한 신라로부터 점증하는 군사적 압박 및 曹魏의 침략전쟁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對魏 전투의 결과 韓那奚 및 臣瀆沽國 吉支 세력 등 다수의 마한 소국이 중국 세력에게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마한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졌고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각지에서 병립하던 吉支 세력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結束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섭해야 할 필요성을 切感하게 되었다. 이들은 과거에 마한 諸國 전체가 ‘馬韓王’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한때는 삼한 중 최대 세력으로서 진왕을 내던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 당대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곧 마한의 吉支 세력들은 서로 모여 그들 가운데 최대의 吉支 세력을 또한 한 번 共立하여 鞮吉支로 삼고, 그들이 鞮吉支에 所屬하는 방식으로 마한의 政治體制를 재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통합세력의 구심체는 백제였고, 백제의 古尔王이 鞮吉支로 공립되었다.

이때부터 『三國史記』百濟本紀는 한강유역의 吉支 세력의 역사가 아닌 마한 鞮吉支의 역사로 전환되었고, 이에 고이왕은 중국 측에 의해 백제의 始祖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백제 고이왕은 마한 전체를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안으로는 여타의 吉支 세력들을 통합하고 통치 구조를 정비하는 등 국가체제를 一新하였고, 밖으로는 고구려·신라 및 중국 세력과 교섭하고 때로는 대결하며 마한을 領導해 나갔다.

주요어 : 마한, 백제, 3세기, 길지, 건길지, 진국, 진왕, 진국체제

目 次

國文抄錄

1. 序言	1
2. 日支國 中心 辰國體制的 構造와 危機	6
3. 吉支의 竝立과 馬韓 政勢의 變動	23
4. 百濟의 制霸와 辰國體制的 終焉	45
5. 結語	61
參考文獻	65
英文抄錄(Abstract)	73

1. 序言

『三國史記』와 『三國志』 魏書 烏桓鮮卑東夷傳 韓條(以下 『三國志』 韓傳)의 기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느 쪽을 더 信憑하여 취하는가에 따라서 3세기 백제의 歷史像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삼국사기』 百濟本紀(以下 百濟本紀)에 따르면 백제는 溫祚王代부터 疆域을 크게 확장하였고 馬韓王을 격파하여 馬韓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1세기 중엽부터 군사적으로 마한을 대표하여 신라와 爭疆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삼국지』 한전에 의하면 3세기 백제는 마한 50餘國 중 하나의 小國(伯濟國)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마한의 諸國 가운데 目支國이 중심적 위치에 있어 그 수장이 辰王을 칭하는 상황이라 한다. 목지국이 마한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으며 그 수장이 진왕으로 불렸다는 중국 측 사서의 傳言은 『삼국사기』나 『三國遺事』 등 우리 측 사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미 1세기 전후부터 삼국이 鼎立하는 형세를 이뤘다는 것에도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중국 측 사서와 우리 측 사서가 전하는 역사상이 相反하는 듯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는 亂脈을 보여 왔다.

1920년대 이래 일본인 연구자들은 중국 사서에서 백제의 명칭이 확인되는 契王 또는 近肖古王 이전의 백제본기 기사는 설화적 傳說이거나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조작·날조된 것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대체로 『삼국지』 한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¹⁾

1) 이 당시 일본인들의 韓國 古代史 研究는 植民地 支配를 合理化하려는 정치적 의

국내 학계의 일각에서는 양측 기록의 타협과 조정을 피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먼저 『삼국지』 한전이 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사서라는 當代性を 중시하여 12세기 중엽에 편찬된 『삼국사기』 기사의 紀年을 조정하는 것이 合理的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기년 조정이 시도된 대표적인 예가 백제본기 온조왕條 기사이다. 백제본기에서 古尔王 이전의 기사는 대체로 소략한데 반하여 유독 온조왕條만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보인다. 이는 주목되었고, 특히 그 주된 내용이 백제의 성장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점이 후대의 조작이 개입된 기사일 가능성을 크게 하는 단서로 여겨졌다.²⁾ 그리하여 백제본기 초기 기사를 전면 虛構로까지 취급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삼국지』 한전을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³⁾ 다른

도가 질게 개입되어 있으므로 그 학문적 價値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초기 기사와 관련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研究史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최범호,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 기록의 불신론 비판」 『대동사학』4, 2005, 6~10쪽.

2)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27쪽.

“溫祚紀에 집중되어 있는 征服關係의 기사를 온조대의 사실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조 이후에 이루어진 征服사실이 始祖의 면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온조대에 집중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시각 위에서 溫祚紀의 정복관계 기사를 分解하여 백제의 성장과정에 맞추어 재정리한다”

3)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朴英社, 1976, 476~481쪽.

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10, 1987, 35~38쪽.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10, 1987, 57~58쪽.

대표적으로 百濟本紀 溫祚王條에 나오는 馬韓王을 『三國志』 韓傳의 目支國 辰王과 동일체로 보고 1세기의 馬韓王과 관련한 기사를 3세기 전후로 紀年을 조정하여 파악하는 시각이 있다(盧重國, 앞의 책, 1988, 88쪽 ; 權五榮,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213~214쪽 ; 김수태,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百濟研究論叢』6, 1998, 201쪽 ; 尹善泰, 「馬韓의 辰王과 臣濱沽國 - 領西濊 지역의 歷史的 推移와 관련하여 -」 『百濟研究』34, 2001, 31쪽). 그러나 馬韓王은 온조왕조와 근접한 시기의 新羅本紀

한편에서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기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논의를 진행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⁴⁾ 현재까지 대다수의 백제 初期史 연구는 기년 조정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백제본기와는 달리 同 史書의 新羅本紀 초기기사는 일부 기년 조정이 가해지기도 하나 전체를 허구로 보고 부정한다거나 기년을 과도하게 조정하여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⁵⁾ 그리고 서울의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考古發掘이 성과를 축적해 감에 따라 고고학계로부터 백제의 성립과 발전시기를 앞당겨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⁶⁾ 이와 더불어 『삼국지』 한전의 경우 자료상의 문제와 성격 등 백제의 성

赫居世居西干條에도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기년을 조정하는 경우 신라본기의 기년도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難關에 부딪히게 된다.

- 4)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관한 一考察」 『東亞文化』7, 1967, 16~31쪽.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三韓考 第3部-」 『韓國學報』3, 1976 ;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303~322쪽.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 -三國史記 百濟本紀를 중심으로-」 『大丘史學』11, 1976, 38~63쪽.
- 5) 新羅本紀의 초기 기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紀年을 조정한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金光洙, 「新羅上古世系の 再構成試圖」 『東洋學』3, 1973 ; 李仁哲, 「新羅上古世系の 新解釋」 『清溪史學』4, 1987). 신라는 서기 전후에 성립되어 늦어도 2세기부터 辰韓의 諸小國을 통합하기 시작하고 3세기에 이르면 그 세력이 경상북도 전역에 이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다(李宇泰,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 신라, 가야」, 『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2003, 27~58쪽). 고구려의 존재는 『三國史記』 기록보다 기년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漢書』地理志에 의하면 『三國史記』의 고구려 건국연도(서기전 37년) 이전부터 高句麗縣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 6)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풍납토성 유적의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 2000.
이형구, 「서울 풍납동 백제왕성 발굴의 역사적 의의」 『風納土城(百濟王城)研究論文集』, 동양고고학연구소, 2000.
이종욱, 「『삼국사기』에 나타난 초기 백제와 풍납토성」 『西江人文論叢』12, 2000.
신희권, 「風納土城 발굴조사를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 『鄉土서울』62, 2002.

립과 발전, 그리고 정치구조 등을 다루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 사료임에도7) 그간 그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8)

종래의 연구가 『삼국지』 한전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면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 측 史書와 중국 측 사서 가운데 어느 쪽 하나를 取信하기보다 양측 자료를 편견 없이 相互 補完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자료가 일견 相衝하는 듯 보이더라도 자료를 取捨選擇하거나 變改하기보다 양측이 서로 만나는 접점을 찾고 양 자료를 包括할 수 있는 이해체계가 요구된다.9)

아울러 百濟史가 古朝鮮 이래 이어온 韓國 古代史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繼起的이고 連續적으로 把握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측 사료 가운데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10)이나 ‘朝鮮之遺民分爲七十餘國皆地方百里’11) 등의 기사는 고조선 사회와 三韓

7) 『三國志』 韓傳이 반영하는 중심 연대는 3세기 중반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부 기사에는 서기전 3세기~서기 3세기의 사실이 시대구분 없이 混在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45쪽; 金貞培,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新書苑, 2000, 292쪽). 또한 『三國志』 東夷傳 내에서도 특히 韓傳은 찬자인 陳壽가 『魏略』을 저본으로 삼아 상당 부분 轉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변개되는 것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이강래, 『『삼국지』동이전과 한국 고대사』, 『한국고대사입문』1, 신서원, 2006, 373쪽). 따라서 『三國志』 韓傳이 전하는 내용이 반드시 당대의 실상이라 確信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그 편찬 의도가 民族誌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金哲煥, 「魏志東夷傳에 나타난 韓國古代社會의 性格」 『大東文化研究』13, 1973, 147~149쪽) 국가 형성과 정치적 성장, 그리고 정치·사회구조 등을 다루는 데에는 사료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하겠다.

8) 李鍾旭, 「『三國志』 韓傳 정치관계 기록의 사료적 가치와 그 한계」,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371~377쪽.

9) 서의식, 「한국고대사의 이해와 ‘국사’ 교육」, 혜안, 2010, 182~185쪽.

10)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卽位條.

11) 『三國遺事』卷1 紀異1, 七十二國.

사회를 계기적 관계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²⁾ 이에 三國 초기의 정치체제는 고조선의 정치체제를 계승한 것으로 상당부분 동질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³⁾ 지금까지는 백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전후 맥락과 역사의 흐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백제의 母體이자 前史인 辰國의 실체와 진국이 삼한으로 分立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한의 政勢變動 속에서 백제가 성립·발전하는 脈絡과 樣相에 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백제가 3세기에 마한을 대표하는 位置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고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辰國에서 馬韓, 그리고 百濟로 이어지는 과정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徐毅植, 「古代史에서 神話·傳說과 國史教育」, 『歷史教育의 方向과 國史教育』 (尹世哲教授停年紀念歷史學論叢2), 솔, 2001, 416~422쪽.

13) 宋鎬晷, 「위만조선의 정치체제와 삼국 초기의 부체제」 『國史館論叢』98, 2002, 21~22쪽.

2. 目支國 中心 辰國體制的 構造와 危機

『後漢書』東夷列傳 韓條(以下 『後漢書』韓傳)는 三韓 78國이 모두 ‘옛 辰國(古之辰國)’이라 기록한다. 삼한 가운데 馬韓이 最大이므로 마한의 諸首長 중에서 辰王을 共立하고, 그 辰王은 目支國에 道읍하며 三韓의 땅 전체에 王 노릇을 한다고 전한다. 이는 삼한 중 辰韓만이 ‘옛 辰國’이고, 辰王은 月支國(目支國)을 다스린다고만 기록한 『三國志』韓傳과 사뭇 다른 기술이다.

[A-1] 韓에는 세 가지 種이 있으니, 하나는 馬韓이요, 둘은 辰韓, 셋은 弁辰이다. ... 모두 78國으로 ... (三韓은) 모두 옛 辰國이다. 馬韓이 最大이므로 그 (馬韓)種을 함께 세워 辰王으로 삼는다. (辰王은) 目支國에 道읍하며 三韓의 땅 전체에 王 노릇을 한다.¹⁴⁾ (『後漢書』韓傳)

[A-2] 韓은 帶方郡의 남쪽에 있으니 ... 사방이 四千里에 달한다. (韓에는) 세 가지 種이 있으니 하나는 馬韓이요, 둘은 辰韓, 셋은 弁韓이니, 辰韓은 옛 辰國이다. ... 辰王은 月支國(目支國)을 다스린다.¹⁵⁾
(『三國志』韓傳)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는 대체로 [A-1]의 『후한서』 한전이

14)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韓.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 凡七十八國 ... 皆古之辰國也 馬韓 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1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韓在帶方之南 ...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古之辰國也 ... 辰王治月支國(目支國)’

[A-2]의 『삼국지』 한전을 참고하여 서술하다가 誤謬를 범한 결과 이러한 相違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삼한이 모두 진국에서 나왔고 목지국의 진왕이 ‘盡王三韓之地’하는 ‘三韓王’이라는 『후한서』 한전의 서술을 否認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⁶⁾ 그러나 두 史書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든 삼한 이전부터 진국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또한 삼한 전체가 진국에서 나왔건 진한만이 진국에서 유래했건 다수의 國들이 모여 ‘진국’이라는 諸國 聯合體를 구성한 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삼국지』 한전이 반영하는 3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진왕이 마한의 목지국을 다스리며 實在하였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社會發展段階論’에 입각할 때 三國이 성립하기 전에 존재하였던 삼한 80여국은 대체로 酋長社會(Chiefdom)로 간주되므로¹⁷⁾ 이보다 앞서

-
- 16) 『三國志』는 西晉의 陳壽(233~297)가, 『後漢書』는 劉宋의 范曄(398~445)이 찬술하였다. 中國의 王朝 순으로는 後漢이 ‘三國’보다 앞서지만 史書의 편찬연대는 『三國志』가 『後漢書』보다 약 150~160년 앞선다.
高柄翊, 「中國歷代正史의 外國列傳 -朝鮮傳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2, 1965.
千寬宇, 「『三國志』韓傳의 再檢討-三韓攷 第2部-」 『震檀學報』 41, 1976 ; 앞의 책, 1989, 177~178, 220~232쪽.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一潮閣, 1980, 92~106쪽.
이와 달리 『後漢書』 韓傳은 後漢代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으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近年에 제출된 바 있다(기수연, 『『후한서』 「동이열전」 연구 -『삼국지』 동이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2005, 199~232쪽).
- 17) 社會發展段階論을 한국 고대사 이해에 적용하는 문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千寬宇 편,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1975.
金貞培, 「君長社會의 發展過程 試論」 『百濟文化』 12, 1979.
金貞培, 「國家起源의 諸理論과 그 適用問題」 『歷史學報』 94·95, 1982.
金貞培, 「辰國의 政治發展段階」 『領土問題研究』 창간호, 1983.
崔光植, 「古代國家形成에 對한 理論的 檢討」 『新羅文化』 3·4, 1987.

진국이라는 諸國 연합체가 존재했다는 것은 논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진국의 존재를否認하는 견해가 제출된 것은¹⁸⁾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史記』 朝鮮列傳의 판본 중에 ‘辰國’을 ‘衆國’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국의 존재 자체를 허구로 단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논의는 진전될수록 진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갔다.¹⁹⁾ 『사기』보다 늦게 찬술된 史書지만 『漢書』 朝鮮傳이나

李鍾旭, 「韓國初期國家의 形成·發展段階」 『韓國史研究』67, 1989.

朱甫墩, 「韓國 古代國家 形成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최광식,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사 검토」 『역사비평』8, 1990.

金光洙, 「古代國家形成論」, 『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97.

최광식, 「한국의 고대국가형성론」, 『한국고대사입문』1, 신서원, 2006.

18) 丁仲煥, 「‘辰國’·三韓 及 加羅의 名稱考」, 『釜山大學校十周年記念論文集』, 1961 ; 『加羅史研究』, 海安, 2000, 264~265쪽.

全海宗, 앞의 책, 1980, 119~121쪽.

辰國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진국을 衆國의 일원으로서 中國에 알려질 정도의 ‘著名한 小國’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金貞培, 「‘辰國’과 ‘韓’에 關한 考察」 『史叢』12·13合輯, 1968, 253~269쪽 ; 박대재, 「『三國志』 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韓國古代史研究』26, 2002), 辰國을 辰韓의 前身으로 요동의 北辰韓이 남하하면서 한반도 중부에 잠시 정착하였던 과도적 상태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三韓考 第1部—」 『史學研究』26, 1975 ; 앞의 책, 1989, 177~178쪽), 辰國은 한강 유역에 형성된 연맹체 세력으로서 익산 지역의 韓과 공존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盧重國, 앞의 논문, 1987, 28~29쪽).

19) 辰國의 존재를 인정한 주요 논고는 다음과 같다.

鄭寅普, 『朝鮮史 研究 上』, 서울신문사, 1946 ; 『朝鮮史 研究 上』(籌園 鄭寅普 全集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66~69쪽.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一)—辰國及三韓考—」 『震檀學報』1, 1934 ; 『韓國古 代史研究』, 朴英社, 1976, 240~241쪽.

李賢惠, 앞의 책, 1984, 36~37쪽.

徐毅植, 「辰國의 變轉과 ‘辰王’의 史的 推移」 『歷史教育』114, 2010 ; 『新羅

『魏略』 등의 東夷 관련 서술이 오로지 『사기』 조선열전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문헌상 존재가 확인되는 서기전 2세기의 진국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 손자 右渠에 이르러 ... 眞番 인근의 辰國(衆國)이 上書하여 天子를 謁見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²⁰⁾
(『史記』 朝鮮列傳)

[B-2] 손자 右渠에 이르러 ... 眞番과 辰國이 上書하여 天子를 謁見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²¹⁾ (『漢書』 朝鮮傳)

[B-3] 右渠가 아직 攻破되지 않았을 때, 朝鮮相 歷谿卿이 右渠에게 諫하였으나 不用되자 東으로 辰國에 갔다. 이때 民 가운데 따라 나서서 (辰國에) 居한 사람이 2,000餘戶였다.²²⁾ (『三國志』 韓 所引 『魏略』)

여기서 『한서』 조선전의 내용은 『사기』 조선열전의 것을 再引用한 형태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지만, 『삼국지』 한전에 인용된 『위략』의 내용은 『사기』 조선열전에 보이지 않는 朝鮮相 歷谿卿 관련 서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 전혀 다른 典據에 의거해 기술한 내용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여기에도 진국이 등장하는 것이다. 양 사서가 반영하는 시기는 衛滿朝鮮의 右渠王이 활동한 서기전 2세기 후반이니, 그렇다면 적어도 서기전 2세기에는 진국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하겠다.²³⁾

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 32~57쪽.

20) 『史記』卷115, 朝鮮列傳.

‘傳子至孫右渠 ... 眞番旁辰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21) 『漢書』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傳子至孫右渠 ... 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 又雍闕弗通’

2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初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사료 [B-1]은 우거왕代에 이르러 위만조선의 세력이 강대해졌고, 이에 진국과 漢이 직접 교류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진국은 위만조선에 의해 가로막히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과 원거리 交涉을 행하였던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진국이 중국 측에 의해 ‘國’이라는 정치단위로 기록되었고 漢과 외교적으로 교섭하였다는 사실에서 정치권력의 집중화와 외교상의 대표자를 상정할 수 있는데²⁴⁾ 그 대표자는 진국의 왕인 辰王이었다.

[B-3]은 위만조선의 신하인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왕에게 한 諫言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亡命하였다는 기사다. 여기서 진국에 망명한 조선상 역계경 집단은 2,000餘戶로서 마한 諸國의 一國 평균 戶數에 해당하는 규모다.²⁵⁾ 후일의 일이지만, 서기전 1세기 溫祚 집단이 南으로 망명하였을 시 馬韓王(辰王)이 東北 100里의 地를 내어 그들을 安置시켰다는 기록이 전하는데,²⁶⁾ 이로부터 약 1세기 전 조선상 역계경 집단을 수용할 때에도 진왕이 그와 동일한 措置를 취했으리라 생각된다.

23) 李丙燾 교수는 辰國을 蓋國의 異稱으로 보아 辰國과 辰王, 그리고 진국의 맹주국인 目支國이 이미 全燕時(서기전 4세기)에 존재하였다고 보았다(李丙燾, 앞의 책, 1976, 238~241쪽).

24) 李賢惠, 앞의 책, 1984, 36~37쪽.

權五榮, 앞의 논문, 1996, 34~35쪽.

“중국에서 주변 집단에 대해 ‘國’이라고 부를 때는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통합을 유지하고 그 통합을 대표하는 개인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한다.”

25) 여기서 말하는 馬韓 諸國의 一國 평균 戶數는 『後漢書』 韓傳과 『三國志』 韓傳에 근거한 것으로, 서기전 2세기 당시의 것이 아니라 서기 1~3세기 경의 것이다.

26)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4年 7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 安之…’

진국은 '2,000餘戶'나 '100里之地'로 표현될 수 있는 적지 않은 규모의 망명 집단을 수용하고 배치할 역량을 가진 정치체였다. 아울러 조선상 역계경 집단이 위만조선을 떠나 진국으로 망명하였던 것은 진국의 관할 하에서 위만조선의 군사적 보복이나 制裁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또한 유사시 군사적 보호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진국이 일개 小國에 불과하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서기전 2세기 후반, 진국은 『후한서』 한전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삼한으로 구성되었고 '盡王三韓之地'하는 진왕을 求心點이자 대표자로 하는 정치체로서 적어도 위만조선과 比肩되는 세력으로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보면 사료 [B-1]과 [B-3]은 일정한 因果關係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상 역계경 집단 등 위만조선에 속해있던 집단이 진국으로 망명하는 일을 계기로 위만조선과 진국 간의 관계는 긴장상태로 轉化하였고, 위치상 진국과 漢 사이에 있었던 위만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漢과 진국 간의 交流를 중간에서 막아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진국이 서기 3세기를 반영하는 사서인 『삼국지』 한전 단계에 이르러 '古之辰國', 곧 '옛 진국'으로 기록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삼국지』가 찬술된 3세기 후반의 시점에는 진국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출되기도 하였다.²⁷⁾ 이 시기에 목지국을 다스리는 '진왕'은 존재하지만 '진국'은 이미 멸망하였으므로, 진왕과 진국은 別個로 파악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27) 박대재, 앞의 논문, 2002, 57~59쪽.

文昌魯, 「『三國志』韓傳의 '辰王'에 대한 理解方向」 『韓國學論叢』26, 2004, 13쪽.

『후한서』 및 『삼국지』 한전 양 사서에서 共히 연이어 기술되어 있어 상호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名號로 보아 진왕은 진국의 왕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古之辰國’이라는 표현을 꼭 진국이 멸망한 후에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과거와 體制가 변하여 ‘옛 진국(古之辰國)’과 구별할 필요가 생긴 ‘지금의 진국(今之辰國)’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표현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²⁸⁾

지금으로서는 기왕의 논의와 관련하여 어느 하나를 지지하기보다 진국 또는 진왕과 관련한 다른 기록들을 살펴가면서 그 실체를 확인해보는 것이 최상의 방도라 생각된다. 이에 우선 주목되는 존재가 新羅本紀와 百濟本紀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馬韓王’이다. 新羅의 赫居世居西干이 나라를 세운 지 38년^[서기전20]에 瓠公으로 하여금 禮를 갖추어 馬韓에 사신으로 보냈더니 마한왕이 호공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C] “辰韓과 卞韓, 二韓은 나의 屬國인데 근래에는 職貢을 보내오지 않고 있으니 事大之禮가 이와 같은가.”²⁹⁾ (『三國史記』, 新羅本紀)

라 하였다. 사료 [C]에 따르면 마한왕은 진한과 변한을 屬國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이 事大의 禮로서 지금껏 마한왕에게 職貢을 바쳐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혁거세거서간이 일어난 후 진한은 마한왕에 대한 직공 獻上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마한왕이 신라의 사신을 꾸짖었을 때 ‘屬國’이나 ‘事大之禮’, ‘職貢’ 등

28) 徐毅植, 앞의 논문, 2010 ; 앞의 책, 2010, 30~32쪽.

29)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38年.

‘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의 표현을 文面 그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선 마한왕은 비슷한 시기의 백제본기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존재로 그 位相이 신라본기의 기록인 [C]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마한왕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사가 후대까지 전한다는 것은 적어도 진한과 변한, 그리고 백제가 마한왕과 ‘事大之禮’로 표현될 수 있을만한 上下關係를 맺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초기 역사는 일정부분 마한왕의 영향력 아래서 전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³⁰⁾ 그리고 보면 이와 같은 존재로서 마한왕은 삼한 전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盡王三韓之地)한다고 기록되는 『후한서』 한전의 진왕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삼국사기』의 마한왕을 진왕으로 바꾸어 기술한다면 『후한서』 한전이 전하는 상황에 그대로 符合하는 것이다.

『후한서』 한전에 따르면 삼한 중 마한이 ‘最大’라서 馬韓人을 共立하여 진왕으로 삼는다고 하였다.³¹⁾ 목지국의 수장이 삼한 전체에 왕 노릇하는 진왕으로 공립되기에 앞서, 본디 마한인으로서 마한의 지배자였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그가 ‘진왕’과 동시에 ‘마한왕’으로 호칭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요컨대 우리 측 사서인 『삼국사기』에서 ‘馬韓王’이라는 名號로 나타나는 존재는 중국 측 사서가 전하는, ‘目支國에 도읍하며 三韓의 땅 전체에 王 노릇하는 진국의 왕’, 곧 ‘辰王’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진국과 진왕은 서기전 2세기부터 신라 성립 초기까지, 즉 『삼국사기』의 기년을 따른다고 하면 최소한 서기전 1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그 구성과 위상을 변함없이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以下 본

30) 新羅의 사신 瓠公은 馬韓王을 일컬어 ‘大王’이라 하고 있다. 이 또한 上下關係 또는 所屬 關係를 示唆한다(사료 [G] 참고).

31)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韓.

‘馬韓最大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고에서는 ‘馬韓王’을 ‘辰王’으로 바꾸어 稱함)

『삼국지』 한전과 『후한서』 한전은 기본적으로 民族誌의 성격³²⁾을 가진 기록이므로 진국의 구조 및 진왕의 왕권과 관련된 기사는 드물다. 다만 그와 관련하여 극히 짧지만 일부 단편을 전하는 기록이 있어 참고가 된다. 사료 [A]와 일부 중복되지만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D-1] 馬韓이 最大이므로 그 (馬韓)種을 함께 세워 辰王으로 삼는다.
(辰王은) 目支國에 도읍하며 三韓의 땅 전체에 王 노릇을 한다. ³³⁾
(『後漢書』 韓傳)

[D-2] 辰王은 … 대대로 相繼한다. 辰王은 自立될 수 없다.³⁴⁾ (以下 『三國志』 韓傳)

[D-3] 馬韓에는 … 각기 長帥가 있어 大者는 臣智라 自名하고, 그 다음은 邑借라 한다. … 大國은 萬餘家이고 小國은 數千家로 總 10餘萬戶다.³⁵⁾

[D-4] 弁辰에는 … 渠帥가 있어 大者는 臣智라 名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 있고,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 … 大國은 4~5千家이고 小國은 6~7百家로 總 4~5萬戶다.³⁶⁾

사료 [D-1]에 따르면 마한인을 共立하여 진왕으로 삼고, 그 진왕은

32) 註 7) 참고.

33)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韓.

‘馬韓最大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3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辰王 …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3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馬韓 …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3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弁辰 … 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目支國에 도읍하면서 삼한 땅 전체에 王 노릇을 한다. 진왕은 진국의 왕으로서 삼한 전체를 통괄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한인을 진왕으로 삼는 까닭으로 ‘마한이 最大’라는 점을 들고 있다. [D-1]의 ‘馬韓最大’란 진국을 구성하는 삼한 가운데 최대의 세력을 지닌 韓이 마한이라는 뜻이다. [D-3]과 [D-4]에 의하면 실제 삼한 80여국 가운데 마한이 50여국, 그리고 진·변한이 각기 12국으로 마한을 구성하는 國의 수가 가장 많고, 마한 諸國의 총 戶數는 진한과 변한을 합친 수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한 가운데 最大의 韓이 진왕을 배출하고, 또 진국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진왕의 位와 관련하여 ‘함께 세운다(共立)’는 추대원리 또한 주목된다. ‘(辰王)盡王三韓之地’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진왕은 ‘삼한 전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를 보았을 때 진왕을 ‘함께 세워’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삼한 諸國의 諸수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D-2]에서 보듯 진왕의 位는 결코 自立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번 진왕으로 공립되면 그 位는 대를 이어 계승될 수 있으나, 혹 삼한 諸수장의 동의와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교체될 가능성 또한 내포하는 것이다. [D-3]과 [D-4]에서 나타나듯이 삼한 諸國의 수장들은 그들의 대표자로 진왕을 共立함과 동시에, 그들의 세력 大小에 따라 臣智~邑借를 칭하며 진왕을 頂點으로 階序化하고 있다. 삼한 諸國의 경우 大國과 小國 간 戶數의 차이는 최대 10배에 이르는데, 대국의 수장은 臣智, 소국의 수장은 邑借를 칭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 측 기록에 삼한의 80여 小國과 辰國이 동일한 ‘國’으로 표기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양자는 기실 그 位相과 범주^[category]의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삼한 80여 ‘國’은 최대 1萬餘戶의 규모에 渠帥(長帥)를 대표자로 하는 정치체인 반면 ‘辰

國'은 삼한 80여국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의 '국가'(상위의 國)이다. 그리고 진국의 왕인 '진왕'은 삼한 諸國의 수장들이 共立하여 그에 所屬하는 존재로서, 말하자면 삼한 諸國 전체를 통괄하는 한 차원 높은 범주의 '왕'(상위의 王)이라 하겠다.³⁷⁾

단편적이지만 이와 같이 진왕을 중심으로 진국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원리를 편의상 '辰國體制'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진국체제는 삼한 중 최대 세력을 형성한 韓(最大 韓)의 수장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수장을 辰王으로 共立하고, 그를 정점(구심체)으로 삼한 諸國의 수장들이 자신들의 세력의 규모에 따라 臣智~邑借를 칭하며 계서화하는 것이 그 大綱이다.³⁸⁾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 서기전 2세기부터 서기전 1세기 중반의 기간 동안 삼한 중 마한이 最大의 韓으로서 마한에서 진왕을 배출하였고, 마한이 진국을 주도하였다. 마한 諸國 가운데 가장 유력한 목지국의 수장이 馬韓王으로서 마한 전체를 다스리고, 아울러 진왕으로 共立되어 마한을 비롯한 진한 및 변한, 즉 삼한 전체를 統括하고

37) 이와 같은 정치체제는 동시대의 '倭'에서도 관찰된다. 『三國志』倭人傳에 따르면 小國의 수장들이 一女子(卑彌呼)를 共立하여 '王(상위의 王權)'으로 삼고 邪馬壹國에 도읍하니, 이에 다수의 소국들이 女王에게 '統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왕은 大倭를 倂하여 諸國의 交역을 감독케 하고, 女王國의 以北에는 특별히 一大率을 설치하여 諸國을 檢察토록 하니 諸國이 그녀를 두려워하였다고 전한다. 요컨대 韓과 倭에는 諸國을 포괄하는 상위 범주의 '국가'와 諸國의 수장들이 共立하여 그에 所屬하는 상위 범주의 '王'이 존재하였다. 韓과 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二重的 政治構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倭人.

'東南陸行五百里 到伊都國 ... 有千餘戶 世有王 皆統屬女王國 ... 南至邪馬壹國 女王之所都 ... 國有市交易有無 使大倭監之 自女王國以北 特置一大率 檢察諸國 諸國畏憚之 ... 其國本亦以男子爲王 住七八十年 倭國亂 相攻伐歷年 乃共立一女子爲王 名曰卑彌呼'

38) 徐毅植, 앞의 논문, 2010 ; 앞의 책, 2010, 39~42쪽.

있었던 것이다.

한편 [D-1]으로부터 유추한다면 이 시기의 마한이 주도하는, 이른바 ‘마한 중심 진국체제’는 본래의 原形이 아니라 과거 다른 韓 중심의 진국체제에서 변화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馬韓最大共立其種爲辰王’ 기사를 ‘삼한 중 마한이 最大의 韓이 되었으니 그 결과로 마한인(其種)을 진왕으로 共立하게 되었다’로 새겨 ‘馬韓最大’와 ‘共立其種爲辰王’을 因果關係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대의 상황에서는 마한이 ‘最大의 韓’으로서 진왕을 배출하고 진국을 주도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진한 또는 변한의 세력이 최대여서 거기서 진왕을 공립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⁹⁾ 만일 과거에 마한이 삼한 가운데 최대 세력을 이루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면 다음의 기사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E] (辰韓)의 耆老가 代代로 傳하기를, 자신들은 옛 亡人으로 秦役을 피하여 韓國에 왔는데, 馬韓^[馬韓王]이 그 東界地를 分割하여 우리에게 주었다. ... 樂浪人을 ‘우리의 잔여인(阿殘)’이라 名하였는데, 東方人은 我를 阿라 名하니, 이는 樂浪人이 본래 그들의 殘餘人이었음을 이르는 것이다.⁴⁰⁾
(『三國志』 韓傳)

사료 [E]에 따르면 본디 진한은 중국대륙 방면에 위치하였는데 그 일부가 南으로 망명하면서 馬韓^[馬韓王]으로부터 땅을 할양받아 정착할 수 있었다.⁴¹⁾ 진한은 북방에 잔존하는 일부(樂浪人)와 망명하여 마한의

39) 徐毅植, 앞의 논문, 2010 ; 앞의 책, 2010, 36쪽.

4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辰韓 …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東界地에 정착한 일부로 나뉘면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離散으로 인하여 진한의 세력이 약화되기 전에는 진한을 중심으로 진국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사료는 없으나 우선 國號나 王號가 辰國과 辰王으로서 양자 모두 ‘辰’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면, 과거 진국이 성립했을 당시에는 삼한 중 진한이 주도세력이었기 때문에 국명과 왕호가 그와 같이 칭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삼국지』 한전의 ‘진한은 옛 진국이다’(辰韓者古之辰國也)는 문구는 한때 진한이 진국의 중심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기사일 가능성이 있다.⁴²⁾

이러한 추론이 성립한다면 진한의 居西干 共立과 신라 건설도 진한이 중심이 되어 주도했던 옛 진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료가 전한다.

[F] 처음 朝鮮王 準이 衛滿에 擊破되자 이에 그 남은 무리 數千人을 이끌고 바다로 도망하여 馬韓을 攻破하고 自立하여 韓王이 되었다. 準 후대의 韓王이 滅絶하니 馬韓人이 다시 自立하여 辰王이 되었다.⁴³⁾

41) 여기서는 '馬韓割其東界地與之'라 하여 땅을 할양하는 주체를 '馬韓'이라 표현하고 있다. 땅을 떼어서 줄 정도의 외교상 중요한 일이라면 의사결정기구와 그 대표자를 상징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마한'으로 표현된 존재의 실상은 馬韓王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百濟本紀 溫祚王條에서 溫祚 집단이 南下하였을 당시 마한 東北의 100里 땅을 떼어서 백제를 안치시켰다는 馬韓王의 활동과도 相通한다. 또한 百濟本紀 溫祚王條에는 '마한'과 '마한왕'이 混用되는데, 이와 비슷한 용법으로 여겨진다(註 72 참고).

42) 徐毅植, 앞의 논문, 2010 ; 앞의 책, 2010, 36~38쪽.

43)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韓.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

(『後漢書』韓傳)

사료 [F]는 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긴 箕子朝鮮의 準王이 무리 數千人을 이끌고 망명하여 마한을 攻破하고 韓王으로 自立하였다는 내용과, 그리고 후대의 한왕이 滅絶하게 되자 이에 馬韓人이 辰王으로 自立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문맥상 ‘진왕’과 ‘한왕’은 相通하는 명칭으로 생각된다. 진왕의 속성이 ‘盡王三韓之地’하는 ‘삼한왕’인 것을 고려했을 때 一名 ‘한왕’이라 칭해진다 하여도 무리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準王은 한왕의 位에 자립하였는데, ‘自立’하였다는 것은 삼한 諸國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마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정착한 이상 준왕에게는 ‘자립’하는 독단적 조치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準王系 한왕 세력이 멸절하고 나서도 또다시 마한인이 진왕의 位에 ‘自立’을 감행하였다는 점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진왕의 位는 결코 自立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삼한 諸國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강제로 교체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진한과 변한은 이 마한 출신의 진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때에 이르러 ‘자립’했던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 反旗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진한이 신라를 세우고 진국에서 分立하였을 때 이는 그 명분으로 널리 인정되었을 것이다.

이제 진한이 신라를 성립시킨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한은 과거 자립하여 진왕 位에 올랐던 목지국 진왕에게 반기를 들고, ‘진한 중심 진국질서’의 회복과 재건을 일정한 명분으로 삼아 신라를 건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의 성립에는 진국과 진왕의 구성·운영원리가 根幹이 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44)와 『삼국유사』(45)는 共

히 신라가 진한의 6개 小國의 수장들(干)이 모여 그들의 ‘王’으로 居西干을 共立하고, 6國이 거서간의 지배에 所屬하는 국가 연합체의 형태로 건설된 사실을 說話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⁴⁶⁾ 여기서 거서간은 진한 諸國의 수장들에 의해 공립되고, 諸國이 그에 所屬하는 ‘상위의 왕권’으로서, 비록 그에 소속한 諸國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속성상 辰王과 다를 바 없었다. 즉 거서간은 진한 諸國이 마한 목지국 진왕 대신 새롭게 구심체로 공립한 ‘진왕’이었던 것이다.

마한 중심의 진국체제는 진한 諸國이 신라를 성립시킨 사건을 分岐로 하여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거서간이 일어난 지 38년^[서기전20]에 이르러 신라는 瓠公을 사신으로 보내 지금까지 이어온 진왕과 진한 諸國 간의 臣屬·管轄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사료 [C]와 일부 중복되지만 편의상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G] (赫居世居西干) 38년^[서기전20] (王이) 瓠公을 보내 馬韓을 예방하였다.

44)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卽位年.

45) 『三國遺事』卷1 紀異1, 新羅始祖赫居世王.

46)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에 따르면 辰韓 諸國은 회의체를 중심으로 서로 느슨한 연맹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目支國 辰王에게 복속하고 있었다. 서기전 1세기 중엽에 접어들어 진한 諸國의 干(渠帥)들이 모여 ‘干들의 수장’인 居西干을 추대하고 신라를 건국하였다. 諸干이 저마다 다스리는 小國이 따로 있는 가운데 서로 연대하여 국가 연합체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진한 6國을 아우르는 국가위의 국가, 즉 ‘상위의 국가’로 성립하였고, 6국의 諸干이 공립한 거서간은 신라의 왕으로서 諸干이 그에 소속되는 ‘상위의 왕권’이었다. 진한의 6국은 신라의 성립을 계기로 기존 마한 목지국 진왕 중심의 지배질서에서 이탈하였고, 弁韓의 소국 등 주변 세력을 예하에 아울렀다. 신라의 성립과 발전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徐毅植, 「韓國 古代國家의 二重聳立構造와 그 展開」 『歷史教育』98, 2006 ; 앞의 책, 2010, 65~86쪽.

馬韓王이 호공을 꾸짖으며 말했다. “辰韓과 卞韓, 二韓은 나의 屬國인데 근래에는 職貢을 보내오지 않고 있으니 事大之禮가 이와 같은가.” 호공이 대답하였다. “我國에 二聖이 일어나면서, 人事가 닦이고 天時가 和하여, 倉庾가 충실하고, 人民은 공경하고 겸양하니 辰韓遺民부터 卞韓과 樂浪, 倭人에 이르기까지 경외하여 따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王이 겸허하시어 下臣을 보내어 예방하게 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禮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大王은 크게 노하시어 兵으로서 겁박하시니 이는 어떤 뜻입니까.” 馬韓王이 분노하여 호공을 죽이려 하였다. 左右가 그치길 諫하여, 이에 弒國을 허락하였다.⁴⁷⁾ (『三國史記』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 38年)

사료 [G]에서 호공은 진한 諸國이 혁거세거서간을 공립하여 신라를 성립한 후 ‘自辰韓遺民以至卞韓樂浪倭人無不畏懷’라며 진한의 遺民은 물론이고 弁韓과 樂浪·倭人의 일부까지 통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호공 遣使의 목적은 바야흐로 진한이 삼한 중 最大의 韓으로서 부족함이 없음을 진왕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따라서 마한에서 진왕을 배출하는 진국체제(古之辰國體制)는 이제 새롭게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진왕이 激怒하는 데 그칠 뿐 호공을 처형하지 못하고 온전히 되돌려 보냈던 점을 보아 당시 마한과 진한 사이의 形勢가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목지국 진왕이 삼한 전체에 관할권을 지니고, 진한과 변한이

47)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38年 2月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二韓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其若是乎 對曰 我國自二聖肇興 人事修 天時和 倉庾充實 人民敬讓 自辰韓遺民 以至卞韓樂浪倭人 無不畏懷 而吾王謙虛 遣下臣 修聘 可謂過於禮矣 而大王赫怒 劫之以兵 是何意耶 王憤欲殺之 左右諫止 乃許歸’

진왕에 所屬하여 매년 직공을 바쳐오던 상황이 신라의 성립을 계기로 진한과 변한의 일부가 종래의 소속 관계를 거부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이는 삼한으로 구성되던 진국의 범위와 규모를 크게 축소시켰고, 아울러 진왕의 관할권에 큰 타격을 입혀 새로운 형태의 진국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서기전 1세기 후반에 이르면 마한 중심의 진국체제에는 진한의 분립으로 인해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마한 목지국 진왕을 구심점으로 하고 삼한 諸國이 그에 소속하는 것이 그 체제의 기본 골격이라 한다면, 진한 전체와 변한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진국에 두 개의 구심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아울러 삼한을 통괄하던 진왕이 마한 諸國만을 관할하는 ‘마한왕’으로 그 위상이 축소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舊 진국질서의 위기는 마한 내부에서도 발생하였다. 목지국 진왕이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分立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마한 諸國 중 일부 세력도 이러한 흐름에 便乘하여 진왕과의 소속 관계를 이완시키고 사실상 독자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호공 遣使 이듬해 진왕이 사망하는데,⁴⁸⁾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한강유역의 마한 소국들이 모여 새로운 통합세력을 일으켰다. 百濟가 성립한 것이다.

48) 3장의 사료 [I-1] 참고. 瓠公의 遣使는 赫居世居西干 38年の 일이고, 馬韓王의 死亡은 赫居世居西干 39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3. 吉支의 竝立과 馬韓 政勢의 變動

3세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三國志』 韓傳은 當代史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⁴⁹⁾ 『삼국지』 한전에서는 辰國을 일컬어 ‘古之辰國’이라 서술하고 있어 서기전 1세기 이래 진국체제에 古·신을 가를만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암시한다. 3세기의 진국과 관련하여 『삼국지』 한전의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H-1] 辰王은 月支國(目支國)을 다스린다.

[H-2] (辰弁韓 가운데)12國은 辰王에게 所屬한다. 辰王은 항상 馬韓人으로서 삼고 대대로 相繼한다. 辰王은 自立될 수 없다.

[H-3] (弁辰 가운데)12國에도 또한 王이 있다.⁵⁰⁾ (以上 『三國志』 韓傳)

신라와 백제가 성립하기 전까지 진국은 三韓으로 구성되었으며 目支國의 辰王이 삼한을 統括하고 있었다. 그러나 3세기에 접어들면 이전과 비교하여 진국의 구성과 진왕의 위상에 큰 변화가 관찰된다.⁵¹⁾ [H-1]

49) 千寬宇는 『三國志』 韓傳 기록의 上限을 196~220年, 下限을 237~249년으로 보았다(千寬宇,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89, 211~214쪽).

5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辰王治月支國’

‘(辰弁韓)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弁辰)十二國亦有王’

51) 『三國志』 韓傳이나 『後漢書』 韓傳은 三韓 80餘國 중 각국의 지배자를 渠帥로 기록하고, 그 거수들에 의하여 共立된 상위의 존재를 ‘王’으로 기술하고 있다. 중국 측에 의해 ‘王’으로 인식되고 기록된 존재는 과거에는 目支國 辰王 뿐이었으나, 3세기에 이르면 목지국의 진왕과 더불어 辰韓의 진왕, 弁韓

에 따르면 목지국에 도읍하며 삼한 전체를 통괄하던 진왕은 그 위상이 간데없이, 3세기에 들어서 다만 목지국만을 다스리는 일개 소국의 지배자로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⁵²⁾ [H-2]의 ‘辰弁韓 12國’은 辰韓 12國을 말한다.⁵³⁾ 진한 12국이 所屬하는 진왕은 목지국의 진왕과 同名이지만 그 정체는 신라의 居西干이다.⁵⁴⁾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條에서 전

의 王으로 적어도 3왕의 존재가 확인된다. 百濟의 경우는 ‘王’으로 인식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後漢書』 韓傳은 ‘韓 …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이라 기록하여 삼한 78국 가운데 특별히 百濟를 擧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미 後漢代부터 백제가 유력한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2) 사료 [H-1]의 ‘治’를 ‘다스리다’로 읽으면(기수연, 앞의 책, 2005, 226~232쪽) 辰王의 통치 대상을 目支國 一國에 한정시킬 수 있어 진왕을 목지국만 다스리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도읍하다’로 읽으면(權五榮, 앞의 논문, 1996, 213쪽) 문맥상 목지국의 진왕에 所屬하는 小國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어떻게 읽든 간에 『後漢書』 韓傳의 ‘辰王은 目支國에 도읍하며 三韓의 땅 전체에 王 노릇을 한다’는 진왕의 통괄 범위와 비교했을 때 마한의 정세변동 속에서 3세기 목지국 진왕의 관할 범위는 목지국 一國 또는 목지국과 少數의 소국들로 축소된 것으로 이해된다.

『三國志』 韓傳에는 ‘辰王治月支國(目支國)’이라고만 기록될 뿐 辰王의 마한 諸國에 대한 통괄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하여, 진왕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諸韓國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력한 목지국의 長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고(盧泰敦, 「古代國家의 成立과 發展」,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1977, 171쪽), 진왕은 옛 진국 땅에 자리 잡은 마한 소국의 지배자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박대재, 앞의 논문, 2002, 62~68쪽).

53) 弁韓과 辰韓은 합쳐서 24國이다. [H-3]에서는 변한(弁辰)의 12국에 또한 ‘王’이 있다고 하므로 [H-2]에서 말하는 ‘辰王’에게 所屬하는 ‘辰韓 12국’은 변한을 제외한 진한 12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4) 3세기 新羅의 王號는 ‘尼師今’이었다. 이사금은 ‘세습적 성격’을 강조하는 王號로(金光洙, 앞의 논문, 1973, 378~380쪽) ‘居西干 位의 계승자’라는 뜻을 내포한다. 따라서 왕호가 ‘이사금’이라 하여도 그 속성은 ‘거서간’이라 할 것이다. 한편 『三國志』 韓傳에 따르면 辰韓은 처음에 6國으로 구성되었다가 점차 늘어나 12국이 되었고 한다. 적어도 沾解尼師今代(247~261)에는 늘어

하듯 진한 諸國이 모여 居西干을 共立하고 새롭게 諸國 연합체(新羅)를 건설하면서 목지국 진왕의 지배에서 分立한 결과였다.

여기서는 3세기의 신라 거서간이 또 하나의 ‘辰王’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진한이 서기전 1세기에 마한 중심의 진국체제로부터 分립하여 신라를 건설하고 독자 세력화한 데 그치지 않고 3세기에 이르러서는 대외적으로 진한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진국체제를 표방하였던 데서 그 까닭을 유추할 수 있겠다. [H-3]은 弁韓 12國에도 또한 ‘王’이 있다는 기사다. 단순히 ‘왕’으로 칭해진 것을 보면 마한이나 진한 처럼 진왕을 표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변한 12국 또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왕을 共立하여 독자의 정치체를 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⁵⁾

난 6국을 포함하여 진한 12국이 신라에 所屬된 상황이었다. 즉 3세기 중반 진한 12국이 소속하는 ‘진왕’은 신라의 거서간(이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弁辰韓 12國이 소속한 진왕을 辰韓의 王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千寬宇, 「目支國考」 『韓國史研究』24, 1979 ; 앞의 책, 1989, 359~360쪽.

백승충, 「문헌에서 본 가야·삼국과 왜」 『韓國民族文化』12, 1998, 239쪽.

文昌魯,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2000, 140쪽.

박대재, 앞의 논문, 2002, 44~47쪽.

徐毅植, 앞의 논문, 2010 ; 앞의 책, 2010, 40~41쪽.

반면 [H-1]의 辰王과 [H-2]의 辰王을 동일체로 보아 양자를 目支國 辰王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李賢惠, 앞의 책, 1984, 170~171쪽.

盧重國, 앞의 논문, 1990, 75~76쪽.

李道學, 「새로운 摸索을 위한 點檢, 目支國 研究의 現段階」 『百濟研究論叢』6, 1998, 123쪽.

55) 박순발 외,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998, 255쪽.

지금까지는 “12國에도 (각각) 王이 있으며”(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1, 2004, 288쪽)로 마치 ‘十二國(各)有王’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亦’에 유의하여 ‘弁辰에도 諸國을 통괄하는 王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기전 1세기에서 서기 3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변화의 방향은 진국이 삼한으로 分立하고 삼한 諸國의 수장들이 각기 그들의 ‘王’(辰王 또는 王)을 共立하여 독자 세력화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결과 삼한 전체의 왕으로서 목지국 진왕은 名目만 남았을 뿐 과거의 위상을 거의 상실하였고, 실권 또한 크게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政勢의 變動 속에서 과거 마한 중심의 진국체제는 3세기와 비교하여 ‘古之辰國’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까지는 진국체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목지국 진왕이 여전히 ‘辰王’이라는 칭호를 견지하고 있고, 신라 거서간도 ‘진왕’을 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석된다. 진왕은 진국의 왕으로서 진국을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지국 진왕은 마한과 변한의 유력 臣智들에게 優號를 加賜하는 상징적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다.⁵⁶⁾ 이는 적어도 마한과 변한에서는 아직까지 목지국 진왕의 권위가 명목상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지』에서 三韓이 ‘韓’이라는 하나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보아 해당 사서가 찬술될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삼한은 하나의 정치단위로 파악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通用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中國 正史 가운데 『삼국지』의 후속 사서인 『晉書』 東夷列傳에 이르면 마한과 진한이 별개의 편목으로 구성되고, 마한과 진한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진왕이 아닌 馬韓王(馬韓主)과 辰韓王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⁵⁷⁾

56) 사료 [P] 참고.

57) 『晉書』卷97 列傳67 馬韓.

‘武帝 太康元年·二年 其主頻遣使入貢方物’

『晉書』卷97 列傳67 辰韓.

‘武帝太康元年 其王遣使獻方物’

『삼국지』 한전은 진국의 형세변동을 3세기 시점에서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만 전할 뿐, 그간 마한 내에서 목지국 진왕의 세력이 축소되는 구체적인 전후사정이나 내력을 전하지 않는다. 목지국 진왕의 쇠퇴는 일정부분 백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므로 그간의 경과를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참고할 수 있다. 우선 시간을 거슬러 백제의 성립과 관련된 서기전 1세기 후반의 혁거세거서간條의 기사를 살펴보자.

[I-1] 馬韓王이 死亡하였다. 或者가 居西干에게 말하길 “西韓王이 이전에 우리 使臣을 辱보였는데, 지금 喪을 當하여 그 國을 正벌하면 平정하는데 不足하지 않을 것입니다.” 居西干이 말하였다. “타인의 災難을 다 행으로 여기는 것은 不仁한 일이다.” (居西干은) 따르지 않고, 이에 사신을 보내 弔問하고 慰勞하였다.⁵⁸⁾ (『三國史記』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 39年)

[I-2] 百濟 始祖 溫祚가 일어났다.⁵⁹⁾ (『三國史記』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 40年)

서기전 1세기 후반, 혁거세거서간이 호공을 사신으로 보내 진왕에 대한 職貢을 중단하는 등 事大의 禮를 더 이상 행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은 이제부터 마한 중심의 진국체제로부터 分立하고 독자 세력화할 것을 선언한 셈이었다. 이듬해 진왕이 사망하고,⁶⁰⁾[서기전19] 그 이듬해 백제의

58)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39年.

‘馬韓王薨 或說上曰 西韓王前辱我使 今當其喪 征之其國 不足平也 上曰 幸人之災 不仁也 不從 乃遣使弔慰’

59)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40年.

‘百濟始祖溫祚立’

60) 辰韓이 分立을 선언한 이듬해 곧바로 目支國 辰王이 사망하였다는 기록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진왕의 位는 삼한 諸國 수장들의 동의와 지지를 근거로 유지되고 또한 ‘共立’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한 諸國의 수장들이 진한의 分立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왕에게 어떠한 制裁를 가했을 가능성이

시조 溫祚가 일어났다.^[서기전18] [I-1]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내부적으로 진왕이 사망한 틈을 타 마한을 征伐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기도 하였다. 진한이 分立하여 떨어져 나가고, 더욱이 마한에 대한 군사적 정벌이 논의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마한 내부에서는 진한을 통제하지 못한 목지국 진왕의 失政과 무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마한 중심의 진국체제’를 再建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무능한 진왕을 대체할 새로운 구심체가 共立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것이다. 한편 진한의 분립에 자극 받은 마한의 일부 세력들은 이를 목지국 진왕과의 소속 관계를 이완시키고 독자 세력화할 구실로 삼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목지국 진왕의 사망으로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자 [I-2]에서 보이듯 이듬해 곧장 백제가 건국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백제의 성립은 진국체제의 動搖라는 정세변동을 배경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여 馬韓 諸勢力이 ‘마한 중심의 진국체제’의 回復과 再建을 명분삼아 마한 내부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서기전 1세기는 기존의 진국질서가 붕괴하고 三國이 성립하는 激變期였다. [I-1]과 [I-2] 편년의 정확성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백제의 성립에 대한 이러한 큰 흐름만은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제기된다. 이와 관련한 직접적 史料는 없지만, 만일 진왕의 교체가 논의되어 실행되었다면 그것이 ‘馬韓王薨’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마한에서는 上下異心 등 진왕에 대한 離叛이 지속되고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정황상 당시 마한 내에서 일어난 세력은 百濟만이 아니라 복수의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보았을 때 후임으로 즉위한 진왕도 마한 중심의 진국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백제 등 마한 내 여러 吉支 세력들이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을 이어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王號 ‘吉支’가 주목된다.

[J]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鞞吉支 夏言竝王也⁶¹⁾ (『周書』百濟)

[J]의 『周書』百濟傳에 따르면 백제의 民은 백제왕을 鞞吉支라 칭했다고 한다. 여기서 ‘鞞’은 ‘大(큰)’와 통하는 말이므로 鞞吉支는 ‘鞞’과 ‘吉支’의 합칭어로 ‘큰 吉支’라는 뜻이다.⁶²⁾ ‘큰’이라는 수식어로 보았을 때 백제의 왕호는 鞞吉支로 불리기에 앞서 원래는 ‘吉支’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鞞吉支는 複數의 吉支들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존재를 칭하는 명호로서 백제의 吉支가 여타의 吉支들 가운데 월등한 세력이 된 이후에야 칭해진 것이 아닐까 유추된다.

그런데 吉支의 音價가 신라 居西干의 ‘居西’와 상통하고, 또한 그 語義가 ‘王’으로 서로 일치하는 점이 주목된다.⁶³⁾ 그렇다면 백제의 吉支도 신라의 거서간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왕권, 즉 諸國의 수장들에 의해 共立된 ‘상위의 왕권’을 의미하는 왕호일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⁶⁴⁾ 무엇보다

61) 『周書』卷94, 列傳41, 異域上, 百濟.

62) 李丙燾, 「百濟學術 및 技術의 日本傳播」 『百濟研究』2, 1971, 17쪽 ; 『國譯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改訂版, 2012, 23쪽).

63) ‘居西干’은 ‘王’을 뜻하는 일종의 辰韓의 方言이다(『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卽位年. ‘居西干 辰言王’). 이와 마찬가지로 ‘吉支’ 또한 馬韓의 방언으로 생각된다.

‘吉支’는 진한어 ‘居西’뿐 아니라 『日本書紀』에서 百濟王을 말하는 ‘Koni(コニ)-kishi(キシ)’에서 ‘Kishi’, 그리고 『光州版千字文』에서 ‘王’의 訓어로 나오는 ‘기즈(箕子)’와 같은 단어로 보인다.

64) 金聖玟, 「高句麗 王部 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 18쪽.

新羅의 王號 ‘居西干’은 자신의 領率지역에서 각기 독자성을 띤 諸干들이 서로 연대하여 共立한 ‘상위의 王’을 뜻하는데, 고조선에서는 箕子, 백제에서 吉支, 고구려에서 皆次로 서로 달리 표기되었다. 즉 고조선, 신라, 백제, 고

다 백제가 좁게는 마한 사회, 넓게는 진국 사회를 母胎로 하여 거기서 얻은 경험과 문화능력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백제의 구성과 형성 원리를 진국체제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일어난 백제는 마한의 一國으로서의 백제가 아니라⁶⁵⁾ 한강유역의 마한 諸國이 연대·결집하여 그들의 吉支(백제왕)를 共立하고, 그 吉支를 중심체로 諸國 연합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대의 실상일 것이다.

[K] ... 溫祚는 河南 慰禮城에 도읍하고 十臣을 輔翼으로 삼아 國號를 十濟라 하였다. ... 沸流는 彌鄒忽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安居할 수 없었다. 慰禮城에 돌아와 보니, 都邑이 안정되고 人民이 편안하고 태평하므로 마침내 慙悔하고 사망하였다. 비류의 臣民이 모두 慰禮城에 歸附하였다. 이후 내려올 時 百姓이 즐거이 따랐다고 하여 國호를 百濟로 고쳤다.⁶⁶⁾ (『三國史記』 百濟本紀)

사료 [K]는 백제본기 온조왕條에 나오는 건국설화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고구려 계통의 溫祚 집단이 남하하여 오늘날 서울 지역에 十濟

구려의 왕들은 모두 각각의 領率지역에서 독자성을 띤 諸首長에 의해 공립된 上위의 王權(왕들의 왕)의 속성을 지녔던 것이다.

65) 일반적으로 百濟의 성립·발전과정은 高句麗 계통의 流移民 집단이 한강유역에 정착하여 小國(伯濟國)을 형성하고, 점차 주변의 馬韓 諸國을 무력으로 併呑해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백제의 성립은 辰國이 三韓으로 分立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것은 진국 사회와 계기적·연속적 관계로 이해될 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66)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卽位條.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 沸流以彌鄒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라 하는 小國을 건설하였고,⁶⁷⁾ 뒤이어 沸流의 彌鄒忽 소국을 통합하면서 국호를 ‘百濟’로 고쳤다는 사실을 설화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백제’의 成立은 ‘십제’와 ‘미추홀 소국’ 등 복수의 소국이 결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국호를 十濟에서 百濟로 고쳤다는 것에는, ‘十’에서 ‘百’이라는 액면 그대로의 숫자만큼은 아니겠지만 백제가 성립하는 데 다수의 소국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⁶⁸⁾ 백제는 건국하고 얼마 후 4部를 설치하는데,⁶⁹⁾[온조왕31·33년] 이 가운데 西部는 인천의 미추홀 소국이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⁷⁰⁾ 그렇다면 이 당시 東部, 南部, 北部로 개편되는 세력들은 西

67) 百濟本紀 溫祚王條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溫祚 세력은 辰王의 승인 아래 진왕으로부터 100里的 땅을 하사받아 한강 유역에 十濟를 건설하였다(註 77 참고.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 安之’). 이 100里라는 땅의 크기를 통하여 짐작했을 당시 온조 집단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다. 『三國志』 韓傳에 따르면 韓의 면적은 사방 4,000餘里라 하는데,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4,000여리를 三韓 80여국으로 나누어 보면 一國 당 평균 면적이 약 50리가 된다. 이것만으로 온조 세력의 규모가 三韓 소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선불리 추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小國에 근접한 규모로 이주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百濟의 成立’이 온조 집단이 南下하여 小國(十濟)을 건설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十濟를 중심으로 하여 沸流의 彌鄒忽 소국을 포함한 한강유역의 諸小國을 아울러 국가 연합체를 건설한 일을 가리킨다.

68) 百濟의 국가발전이 國號에 표방된 숫자의 확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아 ‘백제’라는 국호에는 多數의 세력이 참여하여 건설된 국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69)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31年.
 ‘分國內民戶 爲南北部’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33年.
 ‘加置東西二部’

70) 千寬宇,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89, 329쪽.
 金哲垞, 「百濟建國考」 『百濟研究』13, 1982, 12~13쪽.
 權五榮, 「初期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 『韓國史論』15, 1986, 83~90쪽.

部の 미추홀 소국과 더불어 백제의 건국에 참여한 소국들⁷¹⁾로 미루어 볼 수 있겠다. 즉 백제의 건국에 참여한 중심 세력은 十濟와 미추홀 소국, 그리고 이에 더하여 후일 '部'로 개편되는 소국들로 이해할 수 있다.

백제가 일어나고 그 초기에는 目支國 辰王에게 禮를 다하며 진왕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⁷²⁾

[L] (溫祚王)13년^[서기전6] 8월, 마침내 疆場을 畫定하였으니, 북쪽으로는 溟河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熊川에 限하였으며, 서쪽으로는 大海, 동쪽으로는 走壤에 이르렀다.⁷³⁾ (『三國史記』 百濟本紀)

71) 盧重國, 앞의 책, 1988, 50쪽.

“百濟本紀 溫祚王條 건국설화에는 彌鄒忽에 정착한 비류 집단과 오늘날 서울에 정착한 온조 집단만이 小國을 건설한 것으로 나오나, 이 두 세력과 더불어 東部の 屹氏 세력, 北部의 解氏·眞氏 세력 등도 각기 소국을 성립시킨 주체세력으로 보인다.”

72) 辰韓 諸國이 그러했던 것처럼 백제도 초기에는 馬韓王(辰王)의 관할 하에 있으며 상하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음의 百濟本紀 溫祚王條 기사에서 진왕과 백제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十年 秋九月 王出獵 獲神鹿 以送馬韓’

‘十三年 八月 遣使馬韓 告遷都’

‘十八年 冬十月 靺鞨掩至 王帥兵 逆戰於七重河 虜獲酋長素牟 送馬韓 其餘賊 盡坑之’

‘二十四年 秋七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 王慙遂壞其柵’

위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백제는 사냥에서 상서로운 물건을 취득하여 마한(마한왕)에게 進上하였고, 遷都하게 되면 사신을 파견하여 그 사실을 마한(마한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대방 우두머리를 포로로 잡아 마한(마한왕)에 인계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한왕으로부터 木柵 축조와 같은 방어시설 설치에 관하여 制裁를 받기도 하였다. (위의 기사에서는 문맥상 ‘馬韓王’과 ‘馬韓’이 混用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73)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13年 8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溟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그러나 안으로 점차 세력을 규합하여 온조왕 13년^[서기전6]이 되면 疆域을 동으로는 走壤, 서로는 大海, 남으로는 熊川, 북으로는 溟河까지 畫定하였다.⁷⁴⁾ 이후 遷都를 단행하고, 宮室을 짓고, 天地에 제사를 지내면서⁷⁵⁾ 諸國에 의해 共立된 ‘吉支’로서의 위세를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료 [L]은 후대의 사실이 온조왕代로 遡及·附會된 대표적 기사로 여겨진다. 주된 이유는 오늘날 禮成江·春川·西海·安城川(錦江)의 네 지역을 선으로 연결한 면적을 백제가 據有한 영역으로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백제가 이렇게 넓은 영역을 경계로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강역’이란 交通路를 중심으로 소국과 소국이 연결되는 鳥足の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⁷⁶⁾ 이 기사를 넓은 면적의 땅을 얻었다는 뜻으로 읽기보다 走壤에 근거지를 둔 세력, 溟河와 熊川에 근거지를 둔 세력, 그리고 서해안에 근거지를 둔 세력들이 백제의 構成員으로 참여하게 된 사실을 전하는 기사로 이해할 수 있다.

백제가 점차 세력을 完備해 나가자 진왕은 백제를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고 牽制하기 시작하였다.

[M-1] (溫祚王) 24年^[6] 가을 7월, 王이 熊川柵을 세우니 馬韓王이 사신을 보내어 책망하고 꾸짖으며 말하였다. “(王은) ... 지금 나라가 完備되고 백성들이 모여드니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城池를

74) 일반적으로 溟河는 예성강으로 비정되고, 熊川은 안성천(李丙燾) 또는 금강(千寬宇)으로, 走壤은 춘천, 大海는 서해로 비정된다.

75) 溫祚王 20년과 38년, 그리고 多婁王 2년에 天地에 대한 祭祀를 지냈다. 이후 한동안 기록이 없다가 古余王代에 다시 천지 제사 기사가 나타난다.

76) 徐毅植, 「新羅 ‘上古’ 初期의 辰韓諸國과 領土擴張」, 『李元淳教授停年紀念 歷史學論叢』, 敎學社, 1991 ; 앞의 책, 2010, 168쪽.

크게 설치하고 나의 封疆을 침범하려 하는데 그 義가 이와 같은가.”
王이 부끄러워 마침내 熊川柵을 헐어버렸다.⁷⁷⁾

[M-2] (溫祚王) 26年^[8], 王이 말했다. “馬韓이 점점 약해져 上下가 離心하니 그 勢가 오래 갈 수 없으리라. 만일 他 세력에 의해 竝呑되면 唇亡齒寒의 격이 될 것이니 窺우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남들(人)보다 먼저 馬韓을 取하여 훗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것이 좋겠다.” 겨울 10월, 王이 사냥한다는 핑계로 병사를 내어 몰래 馬韓을 기습하였다. 마침내 馬韓의 國邑을 아울렀다. 오직 圓山城과 錦峴城 두 城은 굳게 지키어 함락하지 못하였다.⁷⁸⁾

[M-3] (溫祚王) 27年^[9] 여름 4월 (圓山城과 錦峴城) 두 城이 항복하였다. 民을 漢山 북쪽으로 옮겼다. 馬韓이 마침내 滅하였다.⁷⁹⁾
(以上 『三國史記』 百濟本紀)

사료 [M-1]에서 보듯이 백제는 진왕의 制裁에 가로막혀 熊川柵을 철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왕이 백제를 꾸짖으며 ‘今以國完民聚’라 말한 것을 보면 이 때에 이르러 백제는 이미 구성국 간의 결속을 상당부분 안정시켰고, 나아가 주변 세력들까지 백제에 귀부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진왕의 세력은 [M-2]에서 나타나듯 ‘漸弱’하는 추세

77)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4年 7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 安之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遂壞其柵’

78)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6年 7月.

‘王曰 馬韓漸弱 上下離心 其勢不能久 儻爲他所并 則唇亡齒寒 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之 以免後艱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邑 唯圓山 錦峴二城固守不下’

79)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7年 4月.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에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큰 흐름에서 보았을 때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진한의 분립 및 백제의 형성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온조왕 27년^[9], 마침내 백제는 사냥을 假裝하여 진왕의 國邑을 奇襲·併呑하게 되고, 圓山城·錦峴城 전투, 그리고 후일의 牛谷城 전투에서도 승리하였다.⁸⁰⁾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M-3]의 ‘馬韓遂滅’이라는 기사를 文面 그대로 마한 전체가 멸망하였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馬韓’은 마한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馬韓王, 즉 목지국 진왕의 세력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다.⁸¹⁾ 더욱이 백제가 실제로 진왕의 國邑을 併呑하여 直轄化 또는 領域化 했는지도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3세기에도 ‘辰王治月支國(目支國)’이라 하여 목지국 진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⁸²⁾ 삼한 내 유력한 臣智들에게 優號를 加賜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⁸³⁾

백제가 무력을 동원하여 진왕을 공격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한다면, 실제 진왕과 백제 간 전투의 내막은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80)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34年 10月.

‘馬韓舊將周勤 據牛谷城叛 王躬帥兵五千討之 周勤自經 腰斬其尸 并誅其妻子’

81) 百濟本紀 溫祚王條 기사에는 ‘馬韓’과 ‘馬韓王’이 混用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곧 ‘마한’이라고 칭한 경우에도 문맥상 ‘마한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註 72 참고). 이에 따라 [M-3]의 ‘馬韓遂滅’의 ‘마한’도 ‘마한왕’로 고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이후 同書 新羅本紀 脫解尼師今條와 高句麗本紀 太祖大王條에는 마한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이 또한 위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82) 2장의 사료 [A-2] 참고.

83) 사료 [P] 참고. 優號를 賜與한 주체를 目支國 辰王으로 보는 견해(盧重國,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2, 1990, 81쪽 ; 尹善泰, 앞의 논문, 2001, 30쪽)가 있고, 大國의 유력한 臣智들이 타 臣智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優號를 自稱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權五榮, 앞의 논문, 1996, 217~219쪽 ; 박대재, 앞의 논문, 2002, 52~53쪽).

제기된다. 앞서 진한이 진왕의 지배에서 分立했을 당시, 진왕은 격분할 뿐 그 이상의 措置를 취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한 내부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後日의 사실이긴 하지만 4세기 마한 내에서 忱彌多禮 세력이 일어나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였을 때 백제가 문헌에 ‘屠(屠戮)’라 표현될 정도로 강력하게 진압했던 사례가 확인되고,⁸⁴⁾ 진한에서도 진왕을 칭한 신라왕이 내부에서 반란세력이 일어났을 시 적극적으로 토벌하였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⁸⁵⁾

백제의 분립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심화하는 속에서 목지국 진왕은 이를 ‘反亂’으로 규정하여 무력적 진압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고, 진왕의 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제가 먼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공격은 목지국을 병합·멸망시키거나 진국체제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마한의 일원으로서 명목상으로는 목지국 진왕에게 소속되지만, 실제로는 독자적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고자 하는 방향이었다.⁸⁶⁾ 目支國(月支國)

84)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 49年.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85)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13年 10月.

‘押督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地’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23年 8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滄爲主 唯漢祇部 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 依音汁伐主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86) 이 사건을 계기로 目支國 辰王은 그 위상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辰王의 位가 三韓 諸國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共立되는 점에 유

과 百濟(伯濟國)가 3세기에든 여전히 마한의 일원으로 共存⁸⁷⁾하고 있던 데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마한 諸國에 대한 진왕의 통제력은 전과 같을 수 없었고, 이에 진왕의 세력은 점차 목지국을 중심으로 일부의 소국만을 통괄하는 정도로 축소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⁸⁸⁾ 3세기 단계에서 목지국의 수장은 진왕이라는 호칭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세력은 신라나 백제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진왕도 목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吉支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는 신라에 이어 백제가 일어났다고 기록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吉支 세력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마한 내부에서는 백제에 이어 또 다른 吉支 세력이 일어났던 것 같다. [M-2]에서 목지국 진왕에 대하여 ‘上下가 離心하고 있다’는 표현과, ‘만일 他 세력에 의해 병합된다면...’(儻爲他所并),

의한다면 진왕이 다른 세력으로 교체되었을 가능성마저 있다. 진왕은 독자 세력화하는 백제를 예전처럼 제어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한편 백제는 진왕의 전통적 영도권을 전면으로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 측의 관계는 서로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목지국 진왕이 3세기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史料上 확인되므로 부인할 수 없다.

8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馬韓 … 有爰襄國 牟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 臣漬沽國 伯濟國 速盧不斯國 日華國 古誕者國 古離國 怒藍國 月支國(目支國) 咨離牟盧國 素謂乾國 古爰國 莫盧國 卑離國 占離卑國 臣覺國 支侵國 狗盧國 卑彌國 監奚卑離國 古蒲國 致利鞞國 冉路國 兒林國 駟盧國 內卑離國 感奚國 萬盧國 辟卑離國 曰斯烏旦國 一離國 不彌國 支半國 狗素國 捷盧國 牟盧卑離國 臣蘇塗國 莫盧國 古臘國 臨素半國 臣雲新國 如來卑離國 楚山塗卑離國 一難國 狗奚國 不雲國 不斯漬邪國 爰池國 乾馬國 楚離國 凡五十餘國’

88) 文昌魯, 『三國志』 韓傳의 馬韓과 伯濟國 -마한의 역사적 실체와 백제국의 성장을 중심으로- 『韓國學論叢』27, 2005, 20쪽.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馬韓을 取하여...’(不如先人而取之)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미 복수의 吉支가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다. 목지국 진왕의 관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심체를 중심으로 諸國이 통합되는 경향이 백제의 성립 이래 마한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사기』는 신라와 백제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여타의 吉支 세력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목지국 진왕과 같은 전통적 세력에 대한 서술도 온조왕代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吉支 세력의 존재가 드물게 확인되기도 한다. 『삼국사기』의 신라 脫解尼師今條와 고구려 太祖大王條에서는 ‘馬韓’으로 호칭되는 세력이 활동하였던 기록을 전하는데 이들은 독자적으로 신라 및 고구려와 교섭하던 마한의 吉支 세력으로 여겨진다. 특히 고구려와 교섭한 ‘馬韓’ 세력은 고구려와 中國 郡縣 간에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援軍을 파병하기도 하였다.⁸⁹⁾ 기록이 워낙 단편적이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당시 마한 내에는 백제·목지국 세력 외에 복수

89)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5年 8月.

‘馬韓將孟召 以覆巖城降’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69年 12月.

‘王率馬韓穢貊一萬餘騎 進圍玄菟城 扶餘王遣子尉仇台 領兵二萬 與漢兵并力 拒戰 我軍大敗’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70年.

‘王與馬韓穢貊侵遼東 扶餘王遣兵救破之’

위의 『三國史記』 太祖大王條의 馬韓 관련 기사는 『後漢書』 安帝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後漢書』卷5, 安帝紀 建光 元年 12月.

‘高句驪馬韓穢貊圍玄菟城 夫餘王遣子與州郡并力討破之’

『後漢書』卷5, 安帝紀 延光 元年 2月.

‘夫餘王遣子將兵救玄菟 擊高句驪馬韓穢貊破之 遂遣使貢獻’

의 吉支 세력이 존재하였고, 그 일부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기도 했다는 점은 추론할 수 있겠다.

중국 측 자료에서도 마한 吉支 세력들의 활동을 일부 유추할 수 있다.

[N] 桓·靈^[147~189]의 末에 韓濊가 彊盛하여 (中國) 郡縣이 능히 制御하지 못하였다. (中國 郡縣의) 民이 다수 韓國으로 流入되었다.⁹⁰⁾ (『三國志』 韓傳)

사료 [N]은 2세기 중후반이 되면 韓濊가 강성한 세력을 이루어 이들에 대한 중국 군현의 통제력이 상실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군현의 관할 하에 있던 많은 수의 民人이 韓 사회로 유입되었다는 기사다. 여기서 韓은 문맥상 馬韓을 뜻한다. 군현이 韓(馬韓) 세력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이들의 세력이 그 자체로 강성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馬韓을 구성한 諸國이 통합세력을 형성하여 중국 군현에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이 통합된 韓 세력은 군현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한강 유역의 백제로 지목된 바 있다.⁹¹⁾ 즉 한강유역에 위치한 諸國이 백제의 吉支를 중심으로 결집한 결과 이들의 세력이 중국 군현에 대항하여 우위를 점할 만큼 강성해졌던 것이다.⁹²⁾

9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91) 盧重國, 앞의 책, 1988, 64쪽.

92) 百濟는 1세기 중엽(多婁王 37년, 脫解尼師今 8년) 이래로 蛙山城(충북 報恩으로 비정)과 狗壤城(충북 沃川으로 비정)을 두고 新羅와 활발하게 爭疆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충돌 기사는 新羅本紀와 百濟本紀 양쪽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또한 紀年까지 일치하므로 무작정 허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적어도 對신라 등 대외적 군사 활동에 있어서 백제가 한반도 중부의

그러나 이 기사에서 말하는 ‘彊盛한 韓’ 세력을 반드시 백제 하나로만 特稱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백제를 포함한, 마한 각지에서 일어난 복수의 吉支 세력들이 점차 결속을 강화해 나가던 당시의 전반적 추세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⁹³⁾ 중국 군현의 對韓 정책의 기본 방향은 韓 諸國의 분열을 助長하는 것이었는데,⁹⁴⁾ 기록에서 ‘郡縣不能制’라고 표현된 것은 마한 諸國이 各自圖生하기보다 각지에서 吉支를 중심으로 결속하고 교섭상의 대표자를 내세움으로써 군현이 기만책을 휘두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O] 建安中^[196~220]에 公孫康이 屯有縣 以南의 荒地를 나누어 帶方郡으로 삼았다. 公孫模와 張敞 등을 보내 遺民을 수집하고, 병사를 일으켜 韓滅를 정벌하였다. (韓國에 流入된) 舊民이 점차 (郡縣으로) 나왔다. 이후 倭와 韓이 마침내 大방군에 屬하였다.⁹⁵⁾ (『三國志』 韓傳)

사료 [O]에서 屯有縣 以南이 荒地가 되었다는 것은 桓·靈帝 말기 이래로 군현의 民人 중 많은 수가 韓 사회로 流出된 결과로서, 이때 유입된 民人은 마한의 吉支 세력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

마한 세력들을 통솔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반영하는 기사로 읽을 수 있다.

93) 사료 [N]에서 구체적 명칭보다 ‘韓’으로 기록된 것은 복수의 吉支 세력을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中國 郡縣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韓 세력이라 한다면 백제 외에도, 高句麗 太祖大王 69~70년^[121~122]에 고구려에 원군을 파병한 바 있었던 ‘마한’의 吉支 세력, 그리고 4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위치상 경기도 북부에 비정되고 후일 崎離營 전투를 이끄는 臣瀆沽國 吉支 세력이 있다.

94) 金哲垞, 앞의 논문, 1973, 150쪽.

9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 韓滅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이다. 이에 建安年間^[196~220] 公孫康은 그 荒地에 帶方郡을 설치하여 기존에 낙랑군에서 담당하던 對韓 교섭을 대방군이 전담토록 하였고, 公孫模와 張敞 등을 보내 韓濊를 정벌하였다. 공손강이 대방군을 新設한 것과 그 과정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韓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당시 韓의 정치·군사적 강성이 이전과는 달리 위협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한다.⁹⁶⁾

그런데 公孫氏 세력과 대적하던 韓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백제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백제본기에는 해당 연도(省古王~仇首王代)에 중국 군현과의 충돌을 짐작케 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韓 세력은 백제 외의 다른 吉支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 자료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음의 諸吉支 세력 가운데 一部로 생각된다.

마한의 吉支 세력에 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백제 외에도 전통의 목지국 진왕이 牙山灣 일대⁹⁷⁾에서 구심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 같은 마한 唯一의 영도세력이 아니었고 마한 내 여러 吉支 세력 중 하나였다.⁹⁸⁾ 그리고 未詳이지만 고구려 太祖大王

96) 임기환, 「3세기~4세기 초 위(魏)·진(晉)의 동방정책」 『역사와 현실』36, 2000, 6~8쪽.

97) 百濟本紀 溫祚王條는 溫祚 집단이 처음 南下하였을 때 辰王이 東北의 100리 땅을 할양하여 그들을 安置시켰다고 전한다. 이에 의하면 진왕의 治所인 目支國은 오늘날 서울의 서남부 지역임을 유추할 수 있겠다. 목지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說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牙山灣 일대가 다수의 견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박찬규, 「문헌을 통해서 본 馬韓의 始末」 『百濟學報』3, 2010, 10~14쪽.

98) 目支國 辰王이 3세기까지 馬韓 전체에 영도권을 지니는 聯盟長으로 존재하며, 辰·弁韓 12國에도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註 54 참고) 이는 취하지 않는다. 목지국 진왕은 신라와 백제 성립 이래 그 세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3세기 단계에 이르면 그 실질적 지배력은 목지국

代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던 ‘마한’ 吉支 세력을 들 수 있다.⁹⁹⁾ 후술하겠지만 이 세력은 韓那奚 吉支 세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¹⁰⁰⁾ 그 외의 吉支 세력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P]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跖支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¹⁰¹⁾
 (『三國志』韓傳)

삼한에는 ‘加優呼’되는 臣智가 있다고 전한다. 사료 [P]는 언뜻 쉽사리 해석되지 않아 예부터 難讀의 字句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5·4·6·5 형태의 臣雲遣支報, 安邪跖支, 瀆臣離兒不例, 拘邪秦支廉으로 끊어 읽어 마한의 臣雲新國과 臣瀆沽國, 그리고 변한의 安邪國과 狗邪國, 4國의 수장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¹⁰²⁾ 즉 이 기사는 직전의 ‘辰王治月支國(目支國)’ 기사와 이어지므로, 목지국 진왕이 마한과 변한의 4개국 臣智에게 優呼를 加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⁰³⁾ 여기서 신

과 그 주변으로 국한되었으며, 진·변한 12국이 속한 진왕은 목지국 진왕이 아니라 신라의 居西干이기 때문이다.

99) 註 89) 참고.

100) 註 115) 참고.

10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102) 李丙燾, 앞의 책, 1976, 278~279쪽. 여기서 ‘瀆臣離兒不例’에서 ‘瀆臣’는 ‘臣瀆’이 倒置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5자씩 규칙적으로 끊어 읽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臣雲遣支報, 安邪跖支瀆, 臣離兒不例, 拘邪秦支廉으로 읽어서 마한의 臣雲新國과 臣離國, 변한의 安邪國과 狗邪國의 4國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臣離國의 경우 『三國志』韓傳에 열거된 마한 50여국에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나 『晉書』張華傳에 나오는 ‘東夷馬韓新彌諸國’의 新彌國과 동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盧重國, 「馬韓과 樂浪·帶方郡과의 군사충돌과 目支國의 쇠퇴 - 正始연간(240~248)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71, 2003, 41~42쪽).

분고국은, 후술하겠지만 3세기 중반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는 주체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데, 대방군에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太守 弓遵을 戰死시킬 정도의 세력이라면 신분고국을 일개 小國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국지』 한전에서는 신분고국이 마한 50여국 중 一國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기실 신분고국 吉支를 중심으로 諸國이 결합한 통합세력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분고국'은 주변의 마한 6국을 아우르는 상위 권력체로서 기리영 전투 당시 이들 6국을 지휘·통제하며 전투를 이끌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¹⁰⁴⁾ 그렇다면 신분고국과 나란히 優呼를 받는 마한의 臣雲新國 세력도 신분고국과 마찬가지로 전남 혹은 충남지역¹⁰⁵⁾에서 諸國이 결합하여 형성한 吉支 세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⁰⁶⁾

이와 관련하여 282년경 西晉과 최초로 교섭하는 東夷馬韓新彌諸國

103) 盧重國, 앞의 논문, 1990, 81쪽 ; 尹善泰, 앞의 논문, 2001, 33쪽. (단 盧重國 교수는 [P]의 '臣智'를 우호가 加賜되는 마한과 변한 4개국의 臣智가 아니라 '目支國 辰王'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104) 尹善泰, 앞의 논문, 2001, 17쪽.

105) 臣雲新國의 위치는 불명확하지만 충남천안(李丙燾) 또는 전남지역(千寬宇)으로 비정된 바 있다.

李丙燾, 앞의 책, 1976, 266쪽.

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9, 1979 ; 앞의 책, 1989, 414쪽.

106) 사료 [P]에서 馬韓의 2國과 弁韓의 2국은 加優呼의 대상이 된 데 반하여 新羅나 百濟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는 優呼를 賜與하는 주체를 전통의 目支國 辰王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辰韓의 경우 일찍이 목지국 진왕의 지배권에서 分立하고 자기들만의 통합세력을 이루어 '辰王'을 자처하였기 때문에 그 규모나 세력에 상관없이 加優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백제의 경우는 일찍부터 유력한 吉支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여전히 마한의 구성원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아 加優呼의 대상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백제가 성장할 때 진왕의 國문을 기습하는 등 진왕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 적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그 까닭을 일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세력도 주목된다.

[Q] 東夷馬韓 新彌諸國은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떠었으며 幽州와의 거리가 4,000餘里였는데, 歷世로 來附한 바 없는 20餘國이 함께 遣使하여 朝獻하였다. 이에 遠夷가 賓服하고 四境에 근심이 없어지니 자주 풍년이 들고 土馬가 强盛해졌다.¹⁰⁷⁾ (『晉書』張華列傳)

사료 [Q]는 新彌國을 중심으로 한 20餘國이 西晉에 遣使하였다는 기사다. 소속을 마한으로 밝히고 있고 신미국이 마한의 20여국을 대표하여 외교적 교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집단이 실체는 신미국의 吉支를 중심으로 20여국이 결집한 통합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마한에서는 3세기 중반에 이르러 目支國, 百濟, 韓那奚 吉支세력, ‘加優呼’되는 臣瀆沽國과 臣雲新國 吉支세력, 그리고 新彌國 吉支세력 등 복수의 大小 吉支 세력이 일어나 각지에서 통합 정치체를 이루며 竝立하고 있었다.

107) 『晉書』卷3, 武帝, 太康 3年 正月 및 卷36, 張華列傳.

‘東夷馬韓新彌諸國依山帶海 去州四千餘里 歷世未附者二十餘國 竝遣使朝獻 於是遠夷賓服 四境無虞 頻歲豐稔 土馬强盛’

4. 百濟의 制霸와 辰國體制의 終焉

3세기에 마한 각지에서 竝立하던 吉支 세력들은 目支國 辰王 중심의 전통적 진국 질서를 名目上으로는 인정하였지만 실제로는 각기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한의 形勢는 점차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다. 이웃한 신라가 辰韓 諸國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해감에 따라 신라와 爭疆하던 마한은 더 강한 군사적 압박에 놓이고 있었고, 더욱이 중국 측으로부터 강한 군사적 충격까지 가해졌다. 이른바 曹魏의 東方侵略 전쟁이 그것이다.

중국대륙에서 後漢이 망하고 曹魏가 들어서자 景初年間^[237~239] 魏는 요동지역의 군벌인 公孫氏 세력을 몰아내고 樂浪郡과 帶方郡을 장악하였다.¹⁰⁸⁾ 위는 초기에 韓에 대하여 宥和 정책을 펴기도 하였으나,¹⁰⁹⁾ 곧이어 韓 사회를 분열시키고 무력적 제압을 시도하였다. 공격은 高句麗에서부터 시작되었다. 幽州刺史 毌丘儉은 正始 5~6年^[244~245] 고구려를 공격하여 丸都城을 점령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혔고, 玄菟郡 太守 王頎를 보내어 沃沮로 敗走하는 東川王을 추격하였다. 여기에 낙랑군과 대방군의 병력을 동원하여 沃沮와 東濊까지 정벌하였다. 이후 銳鋒은 韓 사회로 향하였다.

10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序.

‘景初中 大興師旅誅淵 又潛軍浮海收樂浪·帶方之郡’

10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R-1] 部從事 吳林은 樂浪이 본래 韓國을 統轄하였다 하여 辰韓八國을 分割하여 樂浪에 주려 하였다. 관리와 통역이 말을 전하는 데 異同이 있어 臣智가 韓을 激忿시켜(臣智激韓忿)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 (대방군) 太守 弓遵과 樂浪太守 劉茂가 병사를 일으켜 정벌하였다. 弓遵이 戰死하였다. 二郡이 마침내 韓을 滅하였다. (『三國志』 韓傳)¹¹⁰⁾

[R-2] 正始 7년^[246] 2월에 幽州刺史 毋丘儉이 高句驪를 토벌하였다. 5월에 濊貊을 토벌하여 모두 攻破하였다. 韓那奚 등 數十國이 각각 種落을 이끌고 投降하였다. (『三國志』 齊王芳紀)¹¹¹⁾

[R-3] (古尔王) 13년^[246] 魏의 幽州刺史 毋丘儉이 樂浪太守 劉茂 및 朔方太守(帶方太守) 王遵(弓遵)과 더불어 高句麗를 정벌하였다. 王이 그 틈을 타서 左將 眞忠을 보내 樂浪의 邊民을 襲取하였다. 劉茂가 그 사실을 듣고 노하니 王이 侵討 당할까 두려워 그 民口를 반환하였다. (『三國史記』 百濟本紀)¹¹²⁾

사료 [R-1]에 따르면 魏는 部從事 吳林을 보내 진한 8國에 대한 교섭 담당을 帶方郡에서 樂浪郡으로 변경시키고자 하였다.¹¹³⁾ 韓 사회는

11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與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111) 『三國志』卷4, 齊王芳紀, 正始7年 2月.

‘幽州刺史毋丘儉討高句驪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

112)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古尔王 13年 8月.

‘魏幽州刺史毋丘儉 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 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113) 사료 [R-1]에서는 관리와 통역이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 崎離營 전투의 직접적 원인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部從事 吳林이 辰韓八國을 分割하여 樂浪郡에 배속시켰던 조치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오림이 취한 조치를 그간 郡縣과 내륙의 韓 사회를 이어온 臣濱沽國과 같은 중간 교역자를 배제하고 진한 8國과 직접 교섭

이에 불만을 품고 正始 7년^[246]¹¹⁴⁾경 마침내 대방군의 崎離營을 선제공격 하였다. 韓 사회의 공격에 낙랑군 태수 劉茂와 대방군 태수 弓遵이 병사를 일으켜 대응하였으나 韓의 군사력이 강성하여 진압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궁준이 戰死하기에 이르렀다. 궁준이 전사하자 魏는 위기를 느끼고 앞서 고구려 정벌에 공을 세운 玄菟郡 태수 王頎를 대방군 태수로 轉任시켜 韓 세력을 진압토록 하였다. 여기서 [R-1]과 [R-2] 사건 간의 연관성은 분명치 않으나,¹¹⁵⁾ 아무튼 韓 사회에 대한 魏의 정벌작전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던지 ‘韓那奚等數十國이 항복했다’거나 ‘마침내 韓을 滅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하여 교역상의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한 魏의 움직임으로 본 견해가 있다 (尹龍九,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 - 曹魏의 東夷經略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85, 1999, 123~126쪽).

114) 사료는 韓 세력이 帶方郡 崎離營을 공격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弓遵이 正始 6년까지 帶方郡 太守로 재직하였고, 王頎가 정시 8년에는 대방군 태수 職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전투는 245~247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權五榮,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 - 백제」,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2003, 30쪽, 註 44 참고).

115) 종래에는 [R-1]과 [R-2]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보았다. 즉 ‘二郡遂滅韓’에 當하는 구체적 표현이 ‘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R-2] 기사는 毋丘儉이 高句麗·濊貊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R-1]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무튼 韓那奚 세력은 正始 7년에 魏의 공격에 대응하여 싸웠던 韓 세력으로 볼 수 있고, 所屬하는 諸國의 숫자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韓那奚等數十國’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韓那奚의 吉支를 중심체로 결집한 諸國 연합체로 생각된다. 그런데 [R-2]의 毋丘儉이 高句麗와 濊貊을 공파하니 그 결과로 韓那奚 세력이 투항했다는 점이 특히 유의된다. 이는 이 전투에서 韓那奚 吉支 세력이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魏의 공격에 대응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韓那奚 세력과 고구려 간의 군사적 연결 관계를 고려한다면 약 1세기 전 太祖大王代 고구려에 派兵하기도 하였던 ‘馬韓’ 吉支 세력이 이 韓那奚 세력과 서로 연관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註 89 참고).

사료 [R-1]에서 기리영 전투를 주도한 세력의 정체는 명확치 않다. 마한의 吉支 세력 중 하나임은 분명하겠지만 구체적 기록이 전하지 않아 연구자마다 百濟(伯濟國) 說,¹¹⁶⁾ 目支國 說,¹¹⁷⁾ 臣瀆沽國 說¹¹⁸⁾ 등으로 견해가 엇갈렸던 것이다. 기리영 전투의 주도 세력으로는 신분고국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신분고국은 당시 ‘加優呼’될 정도로 馬韓 내에서 유력한 吉支 세력이었고, 또한 그 위치가 경기도 북부로 비정¹¹⁹⁾되어 지리상 대방군¹²⁰⁾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

- 116) ‘臣智激韓忿’의 臣智를 기리영 전투를 주도한 세력으로 보고 그 臣智의 정체를 백제 古尔王으로 본 견해가 있다.
千寬宇,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89, 241~242쪽.
李賢惠,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研究論叢』5, 1997, 18~21쪽.
김수태, 앞의 논문, 1998, 191~192쪽.
- 117) 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10, 1987, 36~38쪽 ;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2, 1990, 83쪽.
俞元載, 「『晉書』의 馬韓과 百濟」 『韓國上古史學報』17, 1994, 147쪽.
李道學,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1995, 137쪽.
目支國 辰王이 崎離營 전투를 주도했을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설사 ‘臣智激韓忿’의 판독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三國志』 韓傳 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하여 진왕이라는 명칭과 臣智를 혼용했다고 보기 어렵다(李賢惠, 앞의 논문, 1997, 18~19쪽). 진왕은 여러 신지들로부터 共立된 자로서 신지에 비하여 位格이 한 단계 높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당시 목지국 진왕은 1세기 이래 세력이 크게 축소된 상태였고, 또한 위치상 帶方郡과 거리가 먼 牙山灣 일대가 그 중심지로 비정되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 118) 崎離營 전투의 주도세력으로 臣瀆沽國을 비정하는 견해는 ‘臣智激韓忿’의 字句가 明代 이후의 刊本에서만 확인되고 百衲宋本에는 “臣憤沾韓忿”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三國志』 韓傳을 인용한 문헌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본래의 문장은 ‘臣智激韓忿’보다 ‘臣瀆沽韓忿’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尹龍九, 앞의 논문, 1999, 102~105쪽.
임기환, 앞의 논문, 2000, 21쪽.
권오영, 「伯濟國에서 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40, 2001, 35쪽.
- 119) 千寬宇, 앞의 논문, 1979 ; 앞의 책, 1989, 417~418쪽.

기 때문이다.¹²¹⁾

중국 측 사료는 ‘二郡遂滅韓’이라 하여 마치 중국 세력이 韓 사회 전체를 진압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三韓 또는 馬韓 전체가 휩쓸려 들어간 전쟁이라기보다 경기도 북부의 신분고국 吉支 세력 및 韓那奚 吉支 세력 등이 중심이 된 전쟁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R-3]에서 당시 한반도 중부 지역의 또 다른 강자였던 백제가 대방군과 거리상 크게 멀지 않음에도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¹²²⁾ [R-2]의 韓那奚 등 수십국이 항복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이 ‘數十國’이 정확히 얼마를 의미하는 지는 불명확하지만 삼한 또는 마한 전체의 규모가 아니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¹²³⁾

일반적으로 기리영 전투는 백제가 마한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飛躍하는 중요한 分岐點으로 여겨져 왔다.¹²⁴⁾ 말하자면 3세기 초중반 마한 내 최대의 세력을 이루고 있던 목지국 혹은 신분고국 등 마한의 舊勢力이

120) 李丙燾, 앞의 책, 1976, 118~121쪽.

帶方郡의 위치는 慈悲嶺 이남의 黃海道 지방으로 비정된다.

121) 권오영, 앞의 논문, 2001, 34~36쪽.

122) 百濟本紀 古尙王 13년 기사에 따르면 百濟는 崎離營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고 ‘滅韓’이라고 표현될만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백제가 중국 군현과의 전투에 깊숙하게 참여하였다면 백제 본기 해당 기사에서 帶方郡 太守 弓遵의 戰死와 관련한 기록이 빠질 수 없었을 것이다.

123) [R-1]에서는 전투의 결과를 ‘二郡遂滅韓’이라 기록하였지만, 전투 이후에도 마한의 존재가 여전히 확인되므로 이는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 기사에서 ‘數十國’이라는 숫자도 과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124) 김수태, 앞의 논문, 1998, 195~196쪽.

임기환, 앞의 논문, 2000, 22~23쪽.

권오영, 앞의 논문, 2001, 36~37쪽.

박현숙, 「3~4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와 왕권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83, 2016, 140~143쪽.

正始 7년의 충돌로 지배력을 상실하며 쇠퇴하게 되었고,¹²⁵⁾ 그 틈을 타 백제가 구심점을 잃고 약화한 세력들을 아울러 마한을 주도하는 최대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투가 백제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백제본기에는 백제가 마한 諸國을 병합한다거나 혹은 마한 諸國이 백제에 歸附한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기리영 전투 당시 백제는 樂浪郡 태수가 不在한 틈을 타서 낙랑군의 邊民을 襲取하였을 뿐, 이마저 보복이 예상되자 반환하였다 하여 기리영 전투에 관하여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기리영 전투 이후 백제가 목지국 진왕 세력을 병합했다는 설정도 사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백제본기 온조왕條 기사를 分解하고 紀年(溫祚王 25~27년)을 250여년 이후로 조정한 결과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하겠다.¹²⁶⁾ 그러므로 기리영 전투의 결과 백제가 구심점을 잃은 諸小國을 병합하며 성장했다는 관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와 옥저·동예에 이어 韓那奚 吉支 및 臣瀆沽國 吉支 세력이 曹魏에 의해서 격파되고 ‘二郡遂滅韓’과 ‘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으로 표현될 정도로 다수의 마한 소국이 중국 세력에 항복하게 된 사건은 마한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지고 위기의식을 심어줬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한 각지에서 竝立하던 吉支 세력들이 외부 세력의 침략 또는 당대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섭해야 할 필요성

125) 『三國志』 韓傳에서 ‘滅’이라 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리영 전투 이후에 臣瀆沽國이 멸망했다고 보기도 하나, 신분고국이 『三國志』 韓傳에 기재되고 있는 자체가 신분고국이 中國 세력의 공격에 견디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千寬宇, 앞의 논문, 1979 ; 앞의 책, 1989, 418쪽).

126) 盧重國, 앞의 논문 1990, 85~87쪽.

을 切感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러한 자각은 마한의 吉支들이 모여 서로 結束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 결속의 구체적 방법은 吉支 중 최대 세력을 상위의 王權으로 共立하고, 諸吉支 세력이 그를 구심체로 통합·연대하는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마한 諸國 전체가 ‘馬韓王’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또 한때는 삼한 중 최대 세력으로서 辰王을 내던 역사적 기억과 경험도 그러한 움직임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周書』 百濟傳의 ‘民呼爲鞬吉支 夏言竝王也’라는 기록, 곧 백제왕이 민에 의해 ‘鞬吉支’로 稱해진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비롯한 일이 아닌가 한다. 前述하였듯 ‘鞬’은 ‘大’의 뜻으로 鞬吉支는 여러 吉支들 가운데 가장 우월한 존재를 의미한다. 마한의 吉支 세력들이 모여 그들 가운데 최대 세력을 가진 ‘백제의 吉支’를 鞬吉支로 또 한 번 共立하고, 大小의 諸吉支 세력이 鞬吉支에 소속하는 방식으로 마한의 정치체제를 재편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鞬吉支는 마한의 吉支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왕권이었다.

[S-1] 晉 이후로부터 (百濟가) 諸國을 吞并하여 馬韓의 故地를 據有하였다.
(『通典』, 百濟)¹²⁷⁾

[S-2] 馬韓에는 54國이 있다. … 百濟는 그중 一國이다. 후에 점점 強大해져서 諸小國을 兼하였다. (『梁書』, 百濟)¹²⁸⁾

사료 [S-1]에서 ‘晉 以後’라고 摘示한 것을 주목한다면 이는 晉代에

127) 『通典』 卷185, 邊防1, 東夷上, 百濟.

‘自晉以後 吞并諸國 據有馬韓故地’

128) 『梁書』 東夷列傳, 卷54 列傳第48, 百濟.

‘馬韓有五十四國 … 百濟即其一也 後漸強大 兼諸小國’

발발한 기리영 전투 이후 각지의 吉支 세력들이 백제를 중심으로 결집·통합하던 움직임이 반영된 기사로 읽을 수 있다. 백제 고이왕이 諸吉支 세력 중 韃吉支로 공립된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인의 시각에는 마치 백제가 ‘吞并諸國’ 또는 [S-2]의 ‘兼諸小國’처럼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서 일개 小國이었던 백제가 晉代 이후에야 주변의 소국들을 무력으로 병합하며 성장해 나갔다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馬韓故地를 據有했다는 기록 역시 晉代 이후 백제가 名實相符 마한 각지의 諸吉支를 대표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가 마한의 주도세력으로 대두하는 모습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古尙王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T-1] (古尙王) 27년^[260] 內臣佐平을 두어 宣納事를, 內頭佐平을 두어 庫藏事를, 內法佐平을 두어 禮儀事를, 衛士佐平을 두어 宿衛兵事를, 朝廷佐平을 두어 刑獄事를, 兵官佐平에게는 外兵馬事를 맡겼다. 또 達率·恩率·德率·扞率·奈率과 將德·施德·固德·季德·對德·文督·武督·佐軍·振武·克虞를 두었다. 6佐平은 모두 1品, 達率은 2품, 恩率은 3품 ... 克虞는 16품이다. 2월, 명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주색 옷을 입고 銀花로 관을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붉은색 옷을 입고, 16품 이상은 푸른색 옷을 입게 하였다.¹²⁹⁾

[T-2] (古尙王) 28년^[261] 初吉, 王이 자주색의 소매 넓은 도포를 입고, 푸

129)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古尙王 27年 5月.

‘置內臣佐平掌宣納事 內頭佐平掌庫藏事 內法佐平掌禮儀事 衛士佐平掌宿衛兵事 朝廷佐平掌刑獄事 兵官佐平掌外兵馬事 又置達率恩率德率扞率奈率及將德施德固德季德對德文督武督佐軍振武克虞 六佐平並一品 達率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奈率六品 將德七品 施德八品 固德九品 季德十品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

큰색의 비단 바지를 입고, 金花로 장식한 烏羅冠을 쓰고, 흰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南堂에 앉아 聽事하였다.¹³⁰⁾

[T-3] (古尒王) 29년^[262] 봄 정월, 명령을 내려 官人으로서 財物을 받거나 도둑질 한 자는 그 三倍를 징수하고 終身토록 禁錮에 처하였다.¹³¹⁾ (以上 『三國史記』 百濟本紀)

백제의 吉支가 마한의 鞮吉支로 共立되고 마한 사회가 백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한 시점은 명확치 않다. 다만 기리영 전투가 발발하였던 246년경부터 고이왕이 馬韓王(主)으로서 西晉에 遣使하기 시작하는 280년경 사이의 어느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고이왕 27~29년^[260~262] 백제는 官等制를 마련하고 刑律을 반포하는 등 제도와 문물을 整備하였다. 6佐平和 16官等の 完備 與否를 막론하고 이 당시는 국가제도가 정비되고 왕권이 강화하는 백제 역사의 일대 轉換期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¹³²⁾ 우선 고이왕이 ‘紫大袖袍’나 ‘靑錦袴’와 같은 특별한 예복을 입고, 金花로 장식된 烏羅冠을 쓰고 南堂에 앉아 聽事하였다는 [T-2]의 기사는 고이왕의 왕권이 이전에 비하여 초월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T-1]과 [T-3]의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는 기사는 고이왕이 鞮吉支가 된 이후에 단행하였던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는 諸吉支 세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로의 跳躍을 위하여 국가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

130)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古尒王 28年 春正月初吉.

‘王服紫大袖袍靑錦袴金花飾烏羅冠素皮帶烏韋履 坐南堂聽事’

131)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古尒王 29年 正月.

‘下令 凡官人受財及盜者 三倍徵贓 禁錮終身’

132) 李丙燾, 앞의 책, 1976, 483~484쪽.

金哲煥, 앞의 논문, 1982, 8쪽.

李鍾旭,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45, 1978, 30~32쪽.

었기 때문이다. 관등의 설치나 服色의 제정, 그리고 형률의 반포는 새롭게 편입한 大小의 諸吉支 세력을 鞞吉支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 지배체제로 편제하고, 또한 확대된 지배 권력을 질서 있게 유지·실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U] 樂浪의 外夷인 韓濊貊이 각기 무리를 이끌고 와서 朝貢하였다.
(『三國志』 陳留王)¹³³⁾

사료 [U]는 ‘韓濊貊’ 세력이 曹魏에 遣使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관례와 달리 군현을 통하지 않고 魏와 직접 교섭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¹³⁴⁾ 遣使가 이루어진 景元 2年은 261년으로 고이왕이 鞞吉支로서 烏羅冠을 쓰고 南堂에 앉아 聽事하는 등 초월적 왕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古尙王²⁸年·[T-2])에 해당한다. 즉 이 기사의 ‘韓’은 고이왕을 구심체로 새롭게 결합한 ‘마한’을 의미하고, 당시의 견사는 마한 사회의 변화한 상황을 魏 본국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단 주목되는 것은 ‘韓濊貊’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고이왕이 鞞吉支로서 마한 사회뿐 아니라 인근의 濊貊 세력까지 견사에 참여시키는 등 주변 전체를 아우르게 되었다는 伸張된 위세와 자신감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이왕 25년^[258] 靺鞨 수장의 良馬獻上 기사가 주목된다.¹³⁵⁾ 溫祚王 이래 끊임없이 백제와 對決하였던 말갈이 이때에 이르러

133) 『三國志』卷4, 魏書4, 陳留王, 景元 2年 7月.

‘樂浪外夷韓濊貊各率其屬來朝貢’

134) 李賢惠,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4, 53~54쪽.

135)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古尙王 25年.

마침내 고이왕에게 良馬를 헌상하고 백제에 대한 공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¹³⁶⁾ 良馬를 獻上하는 행위는 韃吉支로 공립된 고이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복속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말갈의 실체는 濊 세력으로 논급된 바 있는데¹³⁷⁾ 그렇다면 이때 백제가 말갈 세력을 아우르게 된 사실이 3년 후 ‘韓濊貊’ 遣使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周書』 百濟傳의 백제 始祖 仇台에 관한 기록도 韃吉支의 共立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V] 百濟는 그 先代가 대개 馬韓의 屬國이다. 夫餘의 別種이다. 仇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帶方故(地)에 나라를 세우니(始國), 그 땅의 경계가 동쪽으로 新羅에 닿고, 북쪽으로 高句麗와 接하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모두 큰 바다에 限한다. 동서의 길이는 450里이고 남북은 900여 리이다. 治所는 固麻城이다. … 王의 姓은 夫餘氏로 ‘於羅瑕’라 부르며, 백성들은 ‘韃吉支’라고 부르니 이는 중국말로 모두 왕이라는 뜻이다. 왕의 아내는 ‘於陸’이라 호칭하니, 중국말로 왕비라는 뜻이다. 벼슬은 16 品階가 있다. 左平은 5명으로 一品, 達率은 30명으로 二品, 恩率은 三品, 德率은 四品, 扞汗率은 五品, 柰率은 六品이다. 六品 이상은 冠을 銀華로 장식하였다. … 또 해마다 네 번씩 始祖 仇台의 사당에 祭祀한다. (『周書』 百濟)¹³⁸⁾

‘靺鞨長羅渴獻良馬十匹 王優勞使者以還之’

136) 百濟本紀에서 靺鞨과 관련한 기사는 향후 약 130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辰斯王 3年^[387]에 다시 나타난다.

137) 俞元載, 「三國史記 僞靺鞨考」 『史學研究』29, 1979.

138) 『周書』卷49, 異域列傳,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故(地) 其地界東極新羅 北接高句麗 西南俱限大海 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百餘里 治固麻城 …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韃吉支 夏言竝王也 妻號於陸 夏言妃也’

백제의 始祖說話는 네 가지가 전하는데¹³⁹⁾ 그 가운데 [V]의 시조 ‘仇台說’만이 중국 사서에 전해지고 있다. ‘仇台’와 ‘古尔’가 음운상 동일하여 동일한 인명의 異寫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국시조의 정체는 곧 고이왕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⁴⁰⁾ 仇台가 곧 고이왕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백제는 서기전 1세기에 건국된 데 반해 고이왕은 3세기의 인물이므로 고이왕을 백제 건국의 시조로 보는 견해는 취하기 어렵다. 고이왕대에 이루어진 제도와 문물정비가 중대한 사업임은 분명하나 그것을 ‘始國’ 또는 ‘始祖’의 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仇台에 의한 ‘始國’이란 백제의 건국이 아닌 백제의 吉支인 古尔王이 鞮吉支로 共立되어 마한 전체를 아우르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후대 왕실에서 仇台에게 해마다 4회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仇台가 마치 마한 전체의 ‘始祖’로 여겨질 만큼, 좁게는 백제, 넓게는 마한의 역사에서 새로운 紀元을 이끌어낸 존재였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사료 [V]의 ‘百濟者其先蓋馬韓之屬國’에서 ‘百濟’는 백제의 鞮吉支를 중심으로 마한의 吉支 세력들이 통합된 상태를 말하고, ‘其先’은 하나의 吉支 세력으로서 한강유역의 백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始國’은 마한 吉支 세력으로서 백제의 ‘건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의 吉支를 鞮吉支로 共立하고 백제 중심의 마한 통합세력이 ‘새롭게 성립’된 3세기 중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周書』百濟傳이 전하는 仇台는 고이왕이

官有十六品 左平五人一品 達率三十人二品 … 六品已上 冠飾銀華 … 又每歲四祠其始祖仇台之廟’

139) 李丙燾, 앞의 책, 1976, 467~468쪽.

140) 李丙燾, 앞의 책, 1976, 476쪽.

며, 그가 鞬吉支로 공립되어 마한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중국 측에 의해 ‘始祖’로 인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백제왕은 鞬吉支로서 대내외로 마한을 대표하게 되었고, 특히 백제의 대외적 외교활동은 과거 吉支로 기능하던 때와 비교하여 그 위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이왕은 마한을 대표하여 魏와 西晉 본국에 遣使하였고¹⁴¹⁾ 태자(賁稽王)를 대방군 태수의 王女와 혼인시켜 대방군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책계왕 즉위 초 대방군은 고구려와 전쟁이 발발하자 백제에게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고, 이에 백제가 援軍을 보내기도 하였다.¹⁴²⁾ 이처럼 백제는 대외적으로 마한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중국 세력과 교섭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군현 세력의 입장에서조차도 혼인동맹을 맺고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는 등의 활동은 백제를 마한의 외교상 대표자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취할 수 없는 조치라 하겠다.¹⁴³⁾

3세기 말에 접어들어 백제와 중국 군현 간의 관계는 대립 관계로 轉化하였다. 책계왕 13년,^[298] 군현 세력이 貊人과 더불어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책계왕이 戰死하게 된다.¹⁴⁴⁾ 그리고 汾西王 7년,^[304] 백제가 樂浪郡 西縣을 襲取하였는데 이에 낙랑군 태수가 刺客을 보내 분서왕을 암살하였다.¹⁴⁵⁾ 이러한 충돌은 鞬吉支를 중심으로 재편

141) 사료 [U], 註 146) 참고.

142)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賁稽王 卽位條.

‘賁稽王 古尔王子 身長大 志氣雄傑 古尔薨 卽位 …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143) 李賢惠, 앞의 논문, 1997, 24~25쪽.

144)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賁稽王 13年 9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 爲敵兵所害 薨’

145)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汾西王 7年.

‘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十月 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賊害 薨’

된 마한이 군현 세력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강한 攻勢를 펴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자객을 보내 분서왕을 암살한 사건은 군현의 입장에서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공격 등 종래의 대처법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守勢에 몰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백
 제의 韃吉支는 마한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중국 세력과의 대결을 주도
 하고, 아울러 그 대가도 고스란히 짊어지는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晉書』 馬韓傳에는 마한과 西晉 간 교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마
 한은 277년^[古余王44년]경부터 290년^[責稽王5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진에
 遣使하였다.¹⁴⁶⁾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韓」이라는 편목으로 입전된
 데 반하여 『진서』 단계에 이르면 「馬韓」과 「辰韓」으로 각기 따로 입전
 되고 있다. 『진서』 등장하는 ‘辰韓’과 ‘辰韓王’은 ‘신라’와 ‘신라왕’을 일
 컸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마한’과 ‘馬韓王(主)’이라는 이름으로 서진
 에 遣使한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¹⁴⁷⁾

146) 『晉書』卷97 列傳67 馬韓.

咸寧 三年(277) 馬韓復來

咸寧 四年(278) 馬韓請內附

太康 元年(280) 馬韓主頻見使入貢方物

太康 二年(281) 馬韓主頻見使入貢方物

太康 七年(286) 馬韓至

太康 八年(287) 馬韓至

太康 十年(289) 馬韓至

太熙 元年(290) 馬韓詣東夷校尉何龢上獻

咸寧 三年에 ‘復來’라고 한 것을 보면 기록에는 없지만 277년 이전에도 마
 한의 遣使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47) 遣使의 주체를 百濟로 보는 설(李基東, 앞의 논문, 1987 ; 千寬宇, 앞의
 책, 1989 ; 권오영, 앞의 논문, 2001 ; 김수태, 「百濟의 對外交渉權 掌握과
 馬韓」 『百濟研究』33, 2001)과 ‘馬韓’으로 통칭되나 시대에 따라 遣使의 주
 체가 바뀌었거나 복수의 집단이라는 견해(盧重國, 앞의 논문, 1990 ; 俞

여기서 ‘馬韓王(主)’이라 불리며 마한 諸國을 이끌고 서진과의 교섭을 주도하는 세력은 백제의 靺吉支로 판단된다. 마한 諸國 전체를 통괄하는 세력으로서 靺吉支의 성격은 馬韓王(主)이라는 명칭과도 부합하고 있다. 다만 靺吉支를 중심으로 통합·결집하는 데 아직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이 일부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전남지역에서 新彌國 吉支를 중심으로 결속하며 西晉과 교섭하기도 하였다.¹⁴⁸⁾ 그러나 그것은 백제를 중심으로 마한 諸國 전체가 통합되는 전반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목지국 진왕이 소멸하는 시기는 분명치 않다. 관련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¹⁴⁹⁾ 太康 元年^[280] 馬韓王(主)이 西晉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을 참고한다면 그 소멸 시기를 280년 이전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백제왕은 3세기 중반 靺吉支에 공립되고, 3세기 후반에 이르면 대외적으로 馬韓王(主)로 인식되고 있었다. 백제 고이왕이 靺吉支, 혹은 중국에 의해 馬韓王(主)으로 칭해지게 되면서 목지국 수장의 ‘辰王’ 칭호는 자연히 소멸하게 되었을 것이다. 진왕은 진국의 왕이기에 앞서 마한 전체에 의해 공립된, 그리고 마한을 대표하는 ‘마한왕’의 위상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목지국과 목지국의 수장은 새로운 ‘백제’를 구성하

元載, 앞의 논문, 1994 ; 李賢惠, 앞의 논문, 1997) 등이 제시되고 있다.
148) 3장의 사료 [Q] 참고.

이와 관련하여 ‘東夷馬韓新彌諸國依 … 歷世未附者二十餘國 竝遣使朝獻’ (『晉書』 張華列傳) 기록을 歷世未附하던 신미국 등이 282년에야 백제의 인술을 통하여 처음으로 西晉에 遣使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김수태, 앞의 논문, 2001, 28~29쪽). 곧 新彌諸國까지 견사에 참여시키는 등 백제는 282년 무렵이면 名實相符 마한을 대표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다.

149) 目支國의 辰王이 崎離營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 위치와 권위가 약화되어 곧 소멸하게 되었다고 본 견해도 있으나(盧重國, 앞의 논문, 1990, 85~87쪽) 자료상 확인된 바는 아니다.

는 諸國의 하나로, 그리고 그 國人으로 재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晉書』 단계부터 진왕의 존재가 중국정사에서 종적을 감춘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마한 내에서 목지국 진왕의 소멸은 舊 진국체제의 終焉을 의미한다. 서기전 2세기 이전부터 이어 내려오던 마한 중심의 진국체제는 진한이 분립해 나가고, 마한 각지에서 吉支들이 일어나 竝立하는 상황에서도 ‘古之辰國’으로서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3세기 중반에 마한이 백제를 중심체로 통합·재편성되어 새로운 ‘靺吉支 체제’를 형성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5. 結語

이 글은 우리 측 자료와 중국 측 자료를 相互 補完적으로 운용하여 百濟가 馬韓을 대표하는 位置에 이르는 과정을 實證적으로 糾明한 것이다. 백제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韓國 古代史의 전체적 흐름으로 眺望하는 위에서 古朝鮮 사회의 繼起的 발전 형태의 일부로 파악하는 데 主眼點을 두었다. 그 결과 辰國에서 三韓이 分立하고, 백제가 馬韓의 패권을 장악하여 三國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論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한으로 구성되었으며 辰王이 ‘盡王三韓之地’하는 진국은 문헌상 적어도 서기전 2세기 후반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진국은 漢과 交涉하는 한편 衛滿朝鮮으로부터 亡命한 대규모 流移民 집단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등 그 세력이 위만조선과 比肩될 정도였다. 이러한 정치체의 외교적 대표자이자 內治의 구심점이 진왕이었음은 물론이다. 이 시기의 진국은 마한에서 진왕을 내는 ‘마한 중심의 진국’이었다. 과거에는 진한을 중심으로 진국이 구성된 적도 있었으나 중국 대륙의 정치적 激變으로 인하여 중심 세력이 마한으로 전환되어 이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진국에서 진왕을 共立하는 운영원리는 삼한 중 最大의 韓에 속한 諸國 가운데 가장 유력한 國의 수장을 진왕으로 共立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진국에서는 마한이 최대의 韓이었으므로 마한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目支國의 수장이 진왕으로 公립되었고, 그 진왕이 삼한 전체를 통괄하였다. 삼한 80여국의 수장들은 진왕에 所屬하고 각자 세력의 大小에 따라 臣智~畝借를 칭하며 진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합 정치체를 구성하였다.

마한 중심의 진국 질서는 한동안 유지되었으나, 서기전 1세기 중엽에 접어들어 그 체제가 크게 動搖하기 시작하였다. 辰韓 諸國이 독자적으로 居西干을 공립함으로써 新羅를 형성하여 진국에서 이탈하였던 것이다. 이는 과거 진국의 중심세력을 이루었던 경험을 가진 진한이 最大의 韓을 표방하며 ‘진한 중심의 진국’을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진국 내에서 마한 목지국 진왕 외에 또 하나의 세력이 성립함으로써 삼한 사회는 두 구심체로 兩分되었다. 진한의 分立은 마한 중심의 진국 질서에 균열을 가하였고, 이에 삼한의 王인 目支國 진왕의 영도력도 크게 약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政勢의 變動 속에서 마한의 小國들은 진한의 분립에 便乘하여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각지에서 大小의 통합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하나가 백제였다. 고구려 계통의 亡命 집단이 건설한 十濟를 중심으로 한강 유역의 諸國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백제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목지국 진왕은 신라에 이어 백제를 진압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전통의 구심점이 동요하고 구질서가 붕괴하기 시작하자 백제에 이어 마한 각지에서 吉支를 공립하고 諸國이 결집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마한의 一員으로 성립한 백제는 좁게는 마한 사회, 넓게는 辰國 사회를 母胎로 하여 거기서 얻은 경험과 문화능력을 繼承하며 발전하였다. 진국은 삼한 諸國이 모여 辰王을 공립하고 그 진왕에 諸國이 所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백제가 성립·운영되는 원리도 기본적으로 진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강유역의 마한 諸國이 모여서 共立한 백제의 ‘王’은 ‘吉支’라 칭해졌다. 이는 箕子朝鮮의 ‘箕子’, 고구려의 ‘皆次’, 그리고 진한의 ‘居西干’과 대응하는 마한의 王號였다.

3세기에 이르면 辰韓과 弁韓은 각각 ‘王’을 공립하고 그것을 구심체

로 하여 결집하고 있었다. 다만 마한에서는 전통의 목지국 진왕이 있어 명목상으로는 ‘辰王’을 공립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백제를 포함한 복수의 吉支 세력들이 각지에서 독립적으로 竝立하는 형국이었다. 기실 전통의 목지국 진왕 세력도 과거의 위상을 거의 상실하고 吉支 세력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3세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삼한을 아우르던 마한 중심의 진국은 현재의 진국과 비교하여 ‘古之辰國’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백제와 목지국을 제외한 마한 내 여타의 吉支 세력에 대한 구체적 활동은 未詳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太祖大王代에 활동한 ‘馬韓’ 세력이 확인되고, 『삼국지』 한전의 정치관련 기사에서 ‘韓’으로 汎稱되는 세력을 마한 吉支 세력의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세기 삼한 諸國 가운데 진왕으로부터 ‘加優呼’되는 臣智가 있었는데 이들은 유력한 吉支 세력이었다. 이들 중 하나인 臣瀆沽國 吉支 세력은 帶方郡을 공격하고 太守 弓遵을 전사시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韓那奚, 臣雲新國, 新彌國 吉支 세력 등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3세기 중엽까지 마한의 諸國은 각지에서 吉支를 중심으로 통합세력을 형성하며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형세는 이웃한 신라로부터 점증하는 군사적 압박 및 曹魏의 침략전쟁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對魏 전투의 결과 韓那奚 및 신분고국 吉支 세력 등 다수의 마한 소국이 중국 세력에게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마한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졌고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각지에서 병립하던 吉支 세력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結束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섭해야 할 필요성을 切感하게 되었다. 이들은 과거에 마한 諸國 전체가 ‘馬韓王’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한때는 삼한 중 최대 세력으로서 진왕을 내던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 당대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곧 마한의 吉支 세력들은 서로 모여 그들 가운데 최대의 吉支 세력을 또 한 번 共立하여 鞮吉支로 삼고, 그들이 鞮吉支에 所屬하는 방식으로 마한의 政治體制를 재편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통합세력의 중심체는 백제였다. 여기에는 신분고국 뿐만이 아니라 목지국 진왕 등 마한 내 諸吉支 勢力이 참여하였다. 마침내 백제의 古尔王이 마한의 鞮吉支로 共立되었다.

백제의 吉支를 鞮吉支로 공립하고 그를 중심체로 마한이 통합·재편성된 시기는 260년경으로 이때부터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한강유역의 吉支 세력의 역사가 아닌 마한 鞮吉支의 역사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고이왕은 중국 측에 의해 백제의 始祖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백제 고이왕은 마한 전체를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안으로는 여타의 吉支 세력들을 통합하고 통치 구조를 정비하는 등 국가체제를 一新하였고, 밖으로는 고구려·신라 및 중국 세력과 교섭하고 때로는 대결하며 마한을 領導해 나갔다.

參考文獻

1. 一次史料

『三國史記』, 『三國遺事』,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宋書』, 『梁書』, 『魏書』, 『周書』, 『通典』, 『冊府元龜』, 『增補文獻備考』, 『日本書紀』

2. 研究書

기수연, 『『후한서』 「동이열전」 연구 -『삼국지』 동이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2005.

金容燮, 『東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문명의 전환-충격, 대응, 통합의 문명으로-』, 지식산업사, 2008.

金貞培,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新書苑, 2002.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盧泰敦,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_____,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사계절, 2014.

_____,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文昌魯,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2000.

박순발 외, 『馬韓史 研究』,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8.

徐毅植,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

_____, 「한국고대사의 이해와 ‘국사’ 교육」, 혜안, 2010.

_____,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고조선·삼국』, 가람기획, 2015.

- 양기석,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2013.
- 양기석 외,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2013.
- 李基東, 『百濟史研究』, 一潮閣, 1996.
- _____, 『백제의 역사』, 주류성, 2006.
-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2.
- 李道學,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1995.
-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 _____, 『韓國古代史研究』, 朴英社, 1976.
- _____,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改訂版, 2012).
-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 _____,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1998.
-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一潮閣, 1980.
- 鄭寅普, 『朝鮮史 研究 上』(蕁園 鄭寅普 全集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 丁仲煥, 『加羅史研究』, 혜안, 2000.
- 千寬宇, 『古朝鮮史 · 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 千寬宇 편,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1975.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百濟의 起源과 建國』, 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최몽룡 외, 『百濟史의 理解』, 학연문화사, 1998.
- 최몽룡·김경택, 『한성시대 백제와 馬韓』, 주류성,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풍납토성 유적의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 2000.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1977.
- _____, 『한국사』5·6·7, 국사편찬위원회, 2003.

_____, 『중국정사조선전』1·2, 2004.

3. 研究論文

- 姜鳳龍, 「百濟의 馬韓 併呑에 대한 新考察」 『韓國上古史學報』 26, 1997.
- _____, 「3~5세기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와 그 성격」 『歷史教育』69, 1999.
- 姜鍾薰, 「新羅上古紀年の 再檢討」 『韓國史論』26, 1991.
- 權五榮, 「初期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 『韓國史論』15, 1986.
- _____,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 _____, 「고대의 나주」, 학술대회 : 나주 마한문화의 형성과 발전 , 나주시·전남대학교박물관, 1997.
- _____, 「伯濟國에서 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40, 2001.
- 高柄翊, 「中國歷代正史의 外國列傳 -朝鮮傳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2, 1965.
- 金光洙, 「新羅上古世系の 再構成試圖」 『東洋學』3, 1973.
- _____, 「古朝鮮·辰國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5, 1989.
- _____, 「新羅 官名 ‘大等’의 屬性과 그 史的 展開」 『歷史教育』59, 1996.
- _____, 「古代國家形成論」, 『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97.
- 김수태,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百濟研究論叢』6, 1998.
- _____, 「百濟의 對外交渉權 掌握과 馬韓」 『百濟研究』33, 2001.
- 金聖玪, 「高句麗 王部 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
-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관한 一考察」 『東亞文化』7, 1967.
- 金容燮, 「고조선 기자정권의 쇄망과 그 유민들의 국가재건」 『歷史教育』137, 2016.
- _____, 「百濟의 시원과 그 국가재건의 성격」 『學林』38, 2016.

- 金貞培, 「辰國과 韓에 關한 考察」 『史叢』12·13合輯, 1968
- _____,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益山の 靑銅器文化와 關連하여-」 『韓國史研究』13, 1976.
- _____, 「君長社會의 發展過程 試論」 『百濟文化』12, 1979.
- _____, 「國家起源의 諸理論과 그 適用問題」 『歷史學報』94·95, 1982.
- _____, 「辰國의 政治發展段階」 『領土問題研究』창간호, 1983.
- 金正賢, 「百濟의 ‘率’系 官制」 『歷史教育』122, 2012.
- 金哲垞,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17·18, 1962.
- _____, 「魏志東夷傳에 나타난 韓國古代社會의 性格」 『大東文化研究』13, 1973.
- _____, 「百濟建國考」 『百濟研究』13, 1982.
- 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10, 1987.
- _____,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2, 1990.
- _____, 「馬韓과 樂浪·帶方郡과의 군사충돌과 目支國의 쇠퇴 -正始연간 (240~248)을 중심으로-」 『大丘史學』71, 2003.
-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38, 1982.
- 박현숙, 「3~4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와 왕권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83, 2016.
- _____, 「『三國史記』 上代記事의 信憑性 問題」 『아시아文化』2, 1987.
- 백승충, 「문헌에서 본 가야·삼국과 왜」 『韓國民族文化』12, 1998.
- 文安植, 「百濟의 榮山江流域 進出과 土着勢力의 推移」 『全南史學』16, 2001.
- _____, 「백제의 마한 복속과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 『韓國史研究』120, 2003.
- 文昌魯, 「『三國志』 韓傳의 ‘辰王’에 대한 理解方向」 『韓國學論叢』26, 2004.
- _____, 「『三國志』 韓傳의 馬韓과 伯濟國 -마한의 역사적 실체와 백제국의 성장을 중심으로-」 『韓國學論叢』27, 2005.

- 박대재, 「『三國志』 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韓國古代史研究』26, 2002.
- 박순발, 「前期 馬韓의 時·空間的 位置에 대하여」 『百濟研究論叢』6, 1998.
- 박찬규, 「馬韓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 文獻史를 중심으로 -」 『東洋古典研究』3, 1994.
- _____, 「백제의 마한사회 병합과정 연구」 『國史館論叢』95, 2001.
- _____, 「문헌을 통해서 본 馬韓의 始末」 『百濟學報』3, 2010.
- 徐毅植, 「新羅 ‘上古’ 初期의 辰韓諸國과 領土擴張」, 『李元淳教授停年紀念歷史學論叢』, 教學社, 1991.
- _____, 「古代史에서 神話·傳說과 國史教育」, 『歷史教育의 方向과 國史教育』 (尹世哲教授停年紀念歷史學論叢2), 솔, 2001.
- _____, 「‘辰韓六村’의 性格과 位置」 『新羅文化』21, 2003.
- _____, 「韓國 古代國家의 二重聳立構造와 그 展開」 『歷史教育』98, 2006.
- _____, 「辰國의 變轉과 ‘辰王’의 史的 推移」 『歷史教育』114, 2010.
- 宋鎬晟, 「위만조선의 정치체제와 삼국 초기의 부체제」 『國史館論叢』98, 2002.
- 신희권, 「風納土城 발굴조사를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 『鄉土서울』62, 2002.
- 俞元載, 「三國史記 僞靺鞨考」 『史學研究』29, 1979.
- _____, 「『晉書』의 馬韓과 百濟」 『韓國上古史學報』17, 1994.
- 유현용, 「溫祚王代 馬韓征服記事의 재고찰」 『史叢』46, 1997.
- 尹善泰, 「馬韓의 辰王과 臣瀆沽國 - 領西瀡 지역의 歷史的 推移와 關聯하여 -」 『百濟研究』34, 2001.
- 윤용구, 「『三國志』 韓傳 對外關係記事에 대한 一檢討」 『百濟研究論叢』6, 1998.
- _____,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 - 曹魏의 東夷經略과 關聯하여 -」 『國史館論叢』85, 1999.
- 이강래, 「『삼국지』동이전과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입문』1, 신서원, 2006.

-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10, 1987.
- _____, 「百濟國의 成長과 馬韓併合」 『百濟論叢』2, 1990.
- 李道學, 「새로운 摸索을 위한 點檢, 日支國 연구의 現단계」 『百濟研究論叢』6, 1998.
-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一)-辰國及三韓考-」 『震檀學報』1, 1934.
- _____, 「三韓問題의 新考察(五)-辰國及三韓考-」 『震檀學報』6, 1936.
- _____, 「百濟學術 및 技術의 日本傳播」 『百濟研究』2, 1971.
- 李仁哲, 「新羅上古世系의 新解釋」 『清溪史學』4, 1987.
-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 -三國史記 百濟本紀를 중심으로-」 『大丘史學』11, 1976.
- _____,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45, 1978.
- _____, 「韓國初期國家의 形成·發展段階」 『韓國史研究』67, 1989.
- _____, 「『三國志』 韓傳 정치관계 기록의 史料적 가치와 그 한계」, 『吉玄益 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 _____, 「百濟 初期國家로서 十濟의 形成」 『國史館論叢』69, 1996.
- _____, 「『삼국사기』에 나타난 초기 백제와 풍납토성」 『西江人文論叢』12, 2000.
- 李賢惠, 「馬韓 小國의 形成에 대하여」 『歷史學報』92, 1981.
- _____, 「馬韓 伯濟國의 形成과 支配集團의 出自」 『百濟研究』22, 1991.
- _____,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 _____,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研究論叢』5, 1997.
- 이형구, 「서울 풍납동 백제왕성 발굴의 역사적 의의」 『風納土城(百濟王城)研究 論文集』, 동양고고학연구소, 2000.
- 임기환, 「3세기~4세기 초 위(魏)·진(晉)의 동방정책」 『역사와 현실』36, 2000.
-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 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 丁仲煥, 「辰國·三韓 及 加羅의 名稱考」, 『釜山大學校十周年紀念論文集』, 1961.

- 曹佐鎬, 「魏志東夷傳의 史料的 價値」 『大東文化研究』13, 1979.
- 朱甫暉, 「韓國 古代國家 形成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民音社, 1990.
- 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三韓考 第1部-」 『史學研究』26, 1975.
- _____, 「『三國志』 韓傳의 再檢討-三韓考 第2部-」 『震檀學報』41, 1976.
- _____, 「三韓의 國家形成(下)-三韓考 第3部-」 『韓國學報』3, 1976.
- _____,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9, 1979.
- _____, 「目支國考」 『韓國史研究』24, 1979.
- 崔光植, 「古代國家形成에 對한 理論的 檢討」 『新羅文化』3·4, 1987.
- _____,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사 검토」 『역사비평』8, 1990.
- _____, 「한국의 고대국가형성론」, 『한국고대사입문』1, 신서원, 2006.
- 최몽룡, 「馬韓 · 目支國 研究의 諸問題」 『百濟論叢』2, 1990.
- 최범호,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 기록의 불신론 비판」 『대동사학』4, 2005.

<Abstract>

Political Changes in the Mahan and Baekje's Supremacy in the 3rd Century

Kim, Min-Seok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using both Korean and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in a mutually complementary way, the present study seeks to elucidate the process through which Baekje(百濟) came to occupy a position representative of the Mahan(馬韓) in the 3rd century AD. In addition, it seeks to examine the process through which Baekje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organically and continuously within the overall development of ancient Korean history rather than understand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a single nation.

Founded as a member of statelet of the Mahan, Baekje inherited and developed the experiences and cultural capacity obtained from both Mahan society, on a microscopic level, and the society of the Jin state (辰國), on a macroscopic level, as its origins. Consisting of the Three

Han(三韓) (also known as Samhan; i. e., Jinhan, Mahan, and Byeonhan), Jin State began to witness agitation in its system around the mid-1st century BC. As in Silla(新羅)'s establishment by the statelets in the Jinhan(辰韓) and secession from Jin State, Jin State was in the process of being divided into the Three Han. Amidst such political changes, the statelets of Mahan gathered, seeking a new order and forming unified forces in diverse places, one of which was Baekje. The statelets comprising the Three Han had founded Jin State by coming together and electing the King of Jin(辰王), under whose command these statelets had come. Nor did the principle on which Baekje was established differ from this. Elected together by the Mahan, the 'king' of Baekje was called the gilji(吉支).

Up to the 3rd century AD, multiple gilji forces coexisted independently in various places in Mahan. Such a situation began to change, with increasing military pressure from neighboring Silla and an invasive war waged by the Wei Dynasty(曹魏) in China as the occasion. In the mid-3rd century AD, diverse gilji forces in Mahan created a united force by coming together, elected the strongest gilji force among themselves as the geon'gilji(鞮吉支; 'great gilji'), and chose to be under the command of this geon'gilji. The center of this unified entity was Baekje, and King Goi(古尔王) of the kingdom assumed the position of the geon'gilji. Accordingly, this ruler was perceived, at times, by the Chinese as the founder of Baekje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Mahan, King Goi of Baekje internally renewed the state system by unifying gilji forces and reorganizing the

ruling structure and externally led Mahan b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and, at times, confronting Chinese forces.

Key words : Baekje(百濟), Mahan(馬韓), Gilji(吉支), Geon'gilji(鞮吉支), Jin State(辰國), King of Jin(辰王), Jin state system(辰國體制)